

November
2010. 11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 2차전지 / 세종시 부동산시장 전망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 경제일지 /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월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2010년 11월호

발 행 인 안희정·박진도

편 집 위 원 추한철, 권희태, 조경연, 맹부영, 이인배, 한무호, 신동호, 김양중

집 필 진 총괄 백운성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김윤아

경제일지 하광학, 김범수, 박용진

외 부 집 필 진 이영훈(한서대학교), 정재호(목원대학교)

발 행 처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14, 1168 팩스(041) 840-118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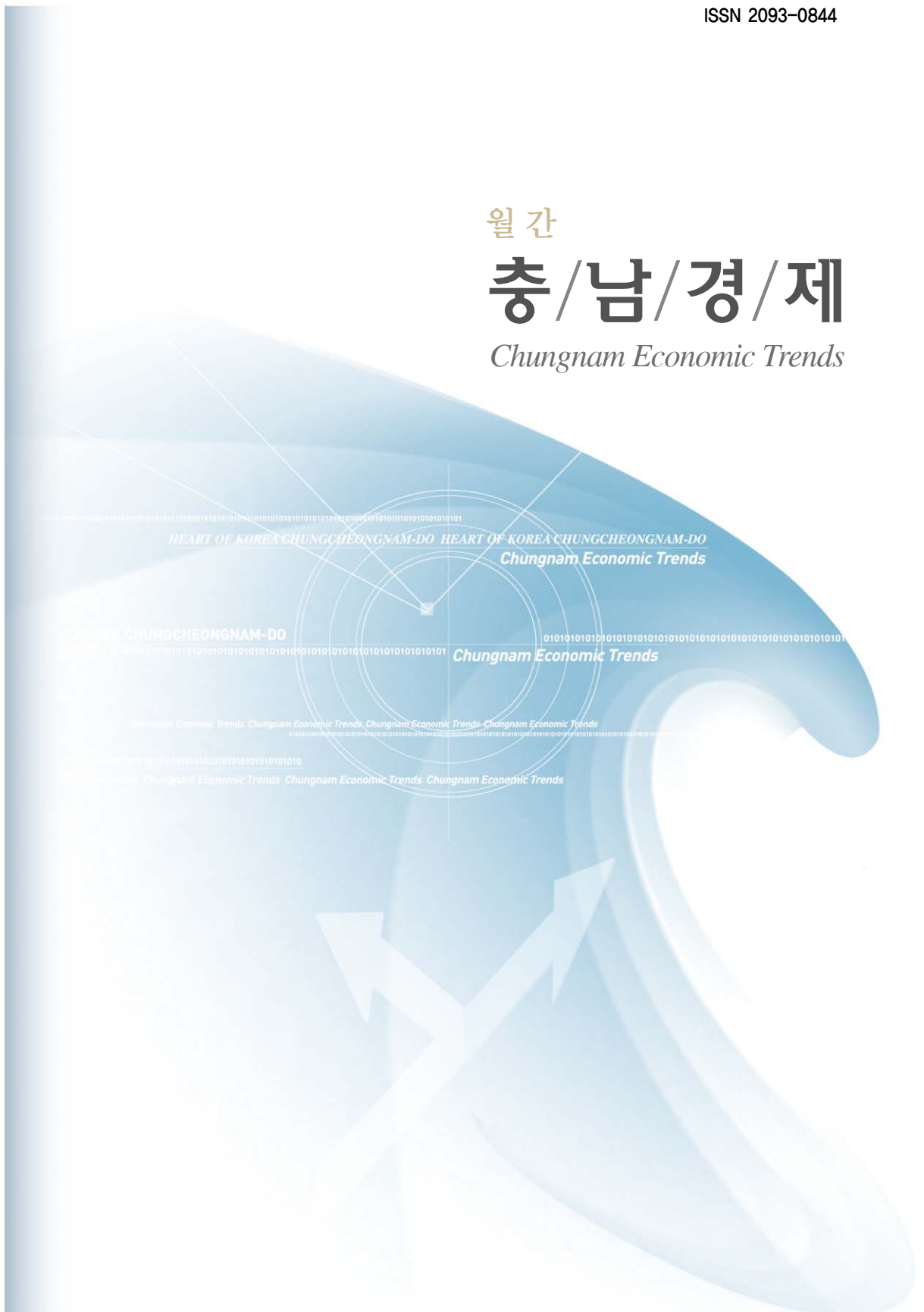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월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ISSUE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 2차전지	3
FOCUS	세종시 부동산시장 전망	19
경제동향	경제동향 (총괄)	29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 및 물가	7. 건설 및 부동산
	4. 수출입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47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57
	2. 충남 주요경제지표	59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61
부록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추이	74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76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 2차전지

이영훈 | 한서대학교 화학과 교수

1. 저탄소녹색성장의 출현

2008년 8월 15일,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식화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분야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연구기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환경에 대한 비판적 접근으로 사용되던 ‘녹색’이라는 용어와 개발과 환경 훼손을 떠올리게 하는 ‘성장’이란 단어는 지금까지 상반되는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이렇게 배치되는 두 어휘가 지금처럼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용어는 ‘이코노미스트’(2000.1.27)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2005 UNESCAP 환경과개발 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후 다보스 포럼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 이후로 ‘친환경’, ‘그린’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이슈와 뉴스거리로 등장해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성의 변화,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인한 온난화 문제가 점차 이슈화되면서 세계각국은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게 되었다. 도쿄의정서나 발리 로드맵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와 EU의 FTA, 미국과의 FTA 재협상에서도 바로 환경에 기초한 논쟁이 큰 화두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의 2005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37개국중 에너지 소비량 10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10위로 상당히 많은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전력효율성 향상 등 그린에너지 시장 점유율은 1.4%에 그쳐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¹⁾ 또한, 에너지분야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의 가격변동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도 미미해 앞으로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취약성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소비 증가율 세계 9위(2008),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OECD 6위이면서 연평균 증가율 1위(2005)라는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하고, 녹색성장을 통해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의 경제구조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2. 녹색성장과 친환경 자동차

경영전략에 있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반드시 기회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게 된다. 최근 일본,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위협보다는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에 있어서 기회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환경 친화적 생산공정 구축,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서는 환경비용을 초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생산설비 및 새로운 친환경 제품 수요 등의 녹색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즉, 그린에너지 시스템 확충을 위해서는 그린에너지 생산·저장용 부품소재 수요가 창출되고, 그린카 생산을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소재 수요가 창출되며,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초절전·고효율 IT부품 수요가 창출된다. 따라서 환경비용을 상회하는 녹색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녹색성장전략인 것이다. 즉, 친환경 부품소재 육성을 통해 국

1) 'Key world energy statistics' IEA energy indicators 2005.

내에서 친환경 부품소재의 생산과 경쟁력을 갖게 되면 그린에너지 시스템, 친환경 자동차, 고효율 가전제품 등 녹색 완제품으로의 생산이 확대된다. 또한 이로 인해 국내 친환경 부품소재산업의 생산·부가가치·고용을 유발함으로써 전후방산업간 동반성장, 성장잠재력 확충 및 고용 있는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이들 분야에 사용되는 친환경 부품소재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들 분야의 부품소재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글로벌 시장 개척과 선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산업으로 국한하여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자. 친환경 차량의 개발 방향으로는 크게 기존 내연기관의 성능개선, 대체연료 개발, 전기자동차(xEV)²⁾기술 개발로 나뉜다<표 1>.

〈표 1〉 친환경 자동차와 기술방향

구 분	세부 항목
내연기관 성능 개선	· 효율을 증대시키는 엔진 부품 개선 ·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 개발
대체연료 기술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연료 추출 및 사용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등)
전기자동차(xEV) 기술	· 하이브리드차 (HEV, PHEV) : 엔진+전기모터를 혼합사용 · 전기자동차 (ZEV) : 전기모터로만 구동, 주기적인 전기 충전 필요 · 수소연료전지차 (FCEV) : 전기모터로만 구동, 수소연료 충전 필요

내연기관의 성능개선은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배기가스 후처리 능력을 증대시키는 기술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은 파워트레인 분야의 핵심기술을 많이 보유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궁극적인 친환경 차량으로 선택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대체연료 기술은 주로 식물에서 얻은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을 화석연료 대신 또는 섞어서 사용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며, 바이오 에탄올은 주로 옥수

2) xEV는 전기구동모터 사용 친환경차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하이브리드차(HEV : Hybrid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순수 전기자동차(EV : Electric Vehicle), 연료전지차(FCEV : Fuel Cell Electric Vehicle) 등을 포함함.

수,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둘 다 과도기적 친환경 차량의 방안이다.

xEV기술은 크게 내연기관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HEV)와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EV)로 구분되며 EV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ZEV³⁾기술을 말한다<표 2>. 전기모터는 낮은 회전수에서도 높은 토크를 갖는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에 이상적인 동력시스템이지만, 충전을 위한 방법과 전지의 한계로 인해 상업화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순수 전기만을 사용하는 자동차(ZEV)는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보편화가 어렵지만 친환경차량의 궁극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표 2〉 전기자동차(xEV) 주요 구성부품

구 분	기 능	하이브리드차 (HEV)	전기자동차 (EV)	수소연료 전지차 (FCEV)
전기모터	구동력 발생	●	●	●
2차전지 ⁴⁾	전기 에너지 저장	●	●	●
BMS ⁵⁾ , PMS ⁶⁾	충방전 조절, 전지 보호 기능	●	●	●
인버터/컨버터	DC↔AC / DC 강압기능	●	●	●
차량 제어기	주행상태에 따라 전체 시스템 제어	●	●	●
내연기관	구동력 및 발전 동력 발생	●	—	—
변속기	주로 연비를 위해 CVT 사용	●	—	—
수소저장탱크	고압의 연료전지용 수소 저장 장치	—	—	●
연료전지	수소의 산화반응에서 전기를 생성	—	—	●

3) Zero Emission Vehicle :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자동차.

4) 2차전지 : <표 3> '전지의 종류 및 주요 용도' 참고.

5) 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

6) PCM : Protection Circuit Module.

〈표 3〉 전지의 종류 및 주요용도

구분	일차전지	이차전지	초고용량 capacitor	기타 이차전지	연료전지
전지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칼리망간 전지 · 수은 전지 · 산화은 전지 · 리튬일차 전지 · 공기아연 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축전지 · 니켈/카드뮴 전지 · 니켈/수소 전지 · 리튬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이온 이차전지 -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 리튬폴리머 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이중층 · 금속산화물 · 하이브리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황 전지 · 금속/공기 전지 · 박형전지 · Redox Flow 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융탄산염 · 고체산화물 · 인산형 · 직접메탄올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 · 장난감 · 시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 노트북 · 캠코더 · 전기자동차 · 전력 저장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용 · 휴대 통신기 · 전력 저장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저장용 · 전기자동차 · 스마트 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발전용 · 수송용

자료 : 한국전지연구조합.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클린디젤 등 복수의 친환경 방식을 동시에 개발하면서 상용화가 본격화될 시스템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계획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내연기관을 구동력으로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 직렬/병렬 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직렬은 엔진을 발전기로 사용하며, 병렬은 엔진을 모터와 함께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차는 기존의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하므로 그동안 이 분야에 강점을 지닌 기존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순수 전기자동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불필요하고 차량의 플랫폼만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 업체, 하이브리드 개발이 뒤쳐진 일본 업체 및 신규 벤처업체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자동차 전문가들은 당분간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중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PHEV)이 순수 전기자동차에 더욱 근접한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동안의 일본 업체들의 독점적인 특허기술에서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4〉 주요 업체별 친환경차 출시 계획

구 분		내 용	특 징
미국 업체	GM	·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시보레 볼트(2010년) ·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CUV(2011년) · 소형 픽업/SUV, 소형차 등 총 15종 전기자동차 (2012년)	PHEV 양산화에 집중
	포드	·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도입하여 CUV 2차종 탑재 (2009년) · 퓨전/밀란 및 상업용 밴 하이브리드차(2010년) ·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세단(2012년)	도요타 HEV 시스템 도입 확대
	크라이슬러	· 2만대 이상 전기자동차, PHEV 생산(2010년) · 총 6종 전기자동차(2012년) · 총 50만대 이상 전기자동차 생산(2013년)	전기자동차, PHEV 개발
유럽 업체	다임러	· 리튬이온전지 탑재 S400 하이브리드(2009년) · 영국 런던에 스마트 전기자동차 100대 시범운영(2009년)	BMW, GM과 HEV 시스템 개발
	BMW	· 미국시장에 미니 전기자동차 500대 양산(2009년) · 가솔린 하이브리드 SUV(2010년)	클린디젤 선호
	폭스바겐	· 친환경 블루모션 모델(클린디젤차)(2009년) · 디젤 하이브리드 골프(2010년)	클린디젤 선호
	PSA	· 디젤 하이브리드 푸조 308 세단/CUV(2010년)	미쓰비시와 전기자동차 협력
일본 업체	도요타	· 3세대 프리우스 연간 18만대 판매 목표(2009년) · 리튬이온전지 장착 PHEV 프리우스 미국시장 투입(2009년) · 하이브리드 전용 렉서스 세단 HS250h 출시(2010년) · iQ 기반 소형 전기자동차(2012년)	Full-HEV 기술 독점, 적용 모델 확대
	혼다	· 저가격 뉴 인사이트(2009년) · 하이브리드 신차 2종 (ZX, 피트)(2010년) · 하이브리드 라인업 4종 확대(연 50만대 판매 목표)(2015년)	저가격 Mild-HEV 선두, 적용 모델 확대
	닛산	· 고급 세단 하이브리드 모델 투입(2010년) · 미국, 일본시장에 전기자동차 투입(2010년) · 이스라엘, 덴마크, 포르투갈에 20만대 전기자동차 공급(2011년)	자체 HEV 시스템 개발, 전기자동차 상용화 우선시
	미쓰비시	· 전기자동차 i-MiEV 연 2천대 생산/판매(2009년) · i-MiEV 파생모델 PSA에 OEM 공급(2010년) · 전기자동차 1만대 생산(2011년)	전기자동차 상용화 선두
중국 업체	BYD	· 세계최초 PHEV F3DM 출시(2008년) · 전기자동차 E6(2010년)	전기자동차에 전력
	하페이	· 코다오모티브를 통해 미국시장에 전기자동차 판매 (2010년)	인지도가 낮지만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에 적극적
	체리	· HEV S18 출시(미정)	
	상하이	· HEV 로워750 출시 (2010년)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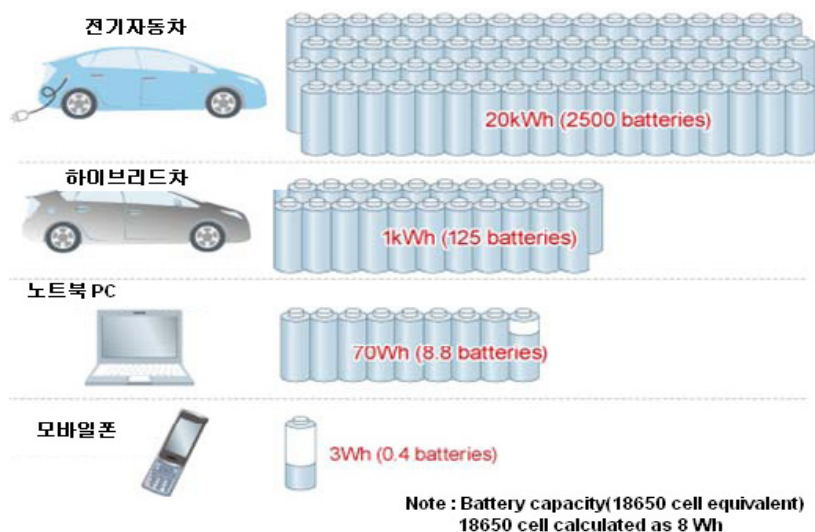
3.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 리튬이온전지

2차전지 시장의 출현

최근의 친환경 자동차 열풍과 함께 2010년부터는 IT분야의 수요 회복과 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시장의 확대로 전지 산업은 연 10%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과 자동차생산기업은 2차 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서로 앞 다투어 시장 선점경쟁을 하고 있다. 가령, 일본 닛산 자동차의 경우 2010년 하반기 full EV(모델명 : Leaf)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Leaf의 2010년 판매목표를 5만대, 2012년 20만대로 잡고 있다. 이 경우 EV에 채용되는 전지용량을 20kWh로 가정하면, Leaf 한 모델에만 필요한 2차전지 수량은 원통형 기준으로 2010년 1.25억 cell, 2012년 5.0억 cell로 산출된다. 2009년 노트북PC에 채용되었던 원통형 2차전지 cell 전체 수량이 11.2억 cell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EV 차량이 전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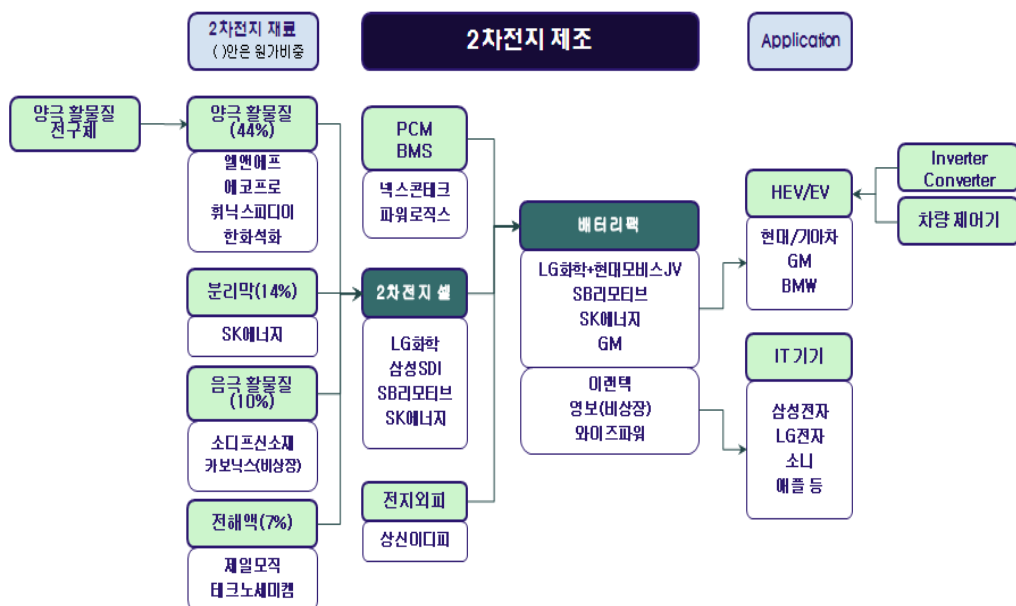
닛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xEV 신모델 출시가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xEV시장과 xEV용 2차전지 시장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 새로운 생산과 경쟁체제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그림 1] 적용대상 1대당 2차전지 cell 수요



국가 차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도 계속 들려온다. 비록 현재 시장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전기자동차의 높은 성장성과 부가가치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1차 성장⁷⁾과는 달리 전·후방산업으로서 자동차와 화학(소재), 전기·전자 부품 등 연관 효과가 높은 거대 산업의 패러다임에 일대 변화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림 2]. 성공적인 전환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완성차 업체와 전지 업체 간의 연계·협력과 정부의 시장 창출 능력이다. 한마디로 기술혁신, 제품개발, 시장형성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 2차전지 공급사슬과 국내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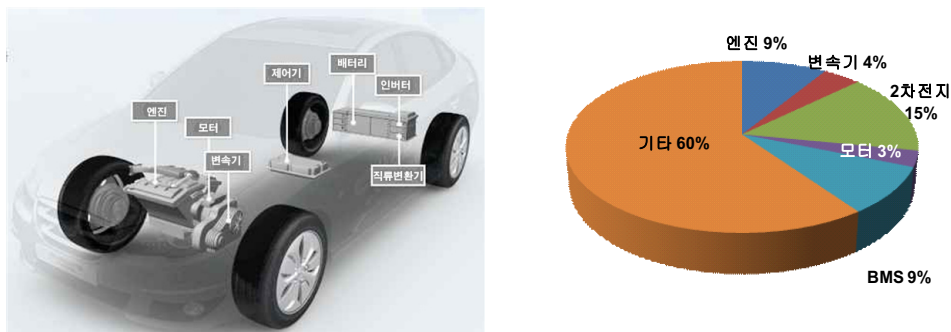
친환경자동차의 핵심, 2차전지

친환경차량에 있어 원가비중이 가장 높고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은 2차전지[그림 3]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은 전지의 안정된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광산 증발 자원 산업화 연구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체결과, LG상사, 포스코, 삼성SDI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앞 다투어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해 탄산리튬의

7) 3C(Cellular phone, Camcorder, Personal Computer)와 개인용 DVD Player나 PDA와 같은 개인용 무선 전자 제품의 시장확대와 성장

경우 LG화학, 삼성SDI, 유미코어 등 2차전지 및 관련 소재 제조 기업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했다. 2차전지가 발달되어 있는 일본 역시 비슷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원료는 수입하되 기술은 수입되기가 어렵다.

[그림 3] 2차전지 공급사슬과 국내 기업



자료 : 국내 출시한 현대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 차량 기준 추정치, 하나금융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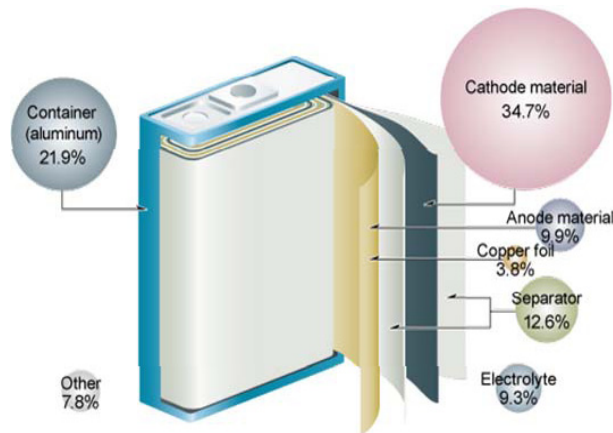
하이브리드차를 선도해온 일본 완성차업체들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자국 전지 업체들과 합작사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전지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 도요타는 파나소닉과 'Panasonic EV Energy(PEVE)'를 설립하여 자사 하이브리드차량에 공급하고 있고, 혼다는 과거에 파나소닉과 산요로부터 전지를 공급받아 왔으나 2009년 GS유아사와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구축하였다. 닛산은 NEC, 미쓰비시는 GS유아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전지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조기에 확보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부품업체 및 벤처기업들이 전지 전문 업체들을 설립하여 미국 및 유럽 완성차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독일의 다임러 벤츠도 자국내 화학전문기업인 에보닉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폭스바겐은 산요, 도시바 및 BYD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차전지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고, 각국 정부도 이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자동차용 2차전지 산업은 국가적인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5위의 자동차산업 강국, 미래의 과제

전기자동차가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싸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바로 전기자동차의 가격경쟁력과 성능을 결정짓는 것은 리튬이온전지

다.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 성능(출력 및 밀도), 안전성(Safety) 및 수명 등 4대 기술적 문제<표 6>의 해결 속도에 따라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성장 속도도 달라진다. 우선 리튬이온전지가 어느 정도의 기술발전 단계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의 가능성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자. 리튬이온전지는 핵심은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등으로 구성되며[그림 2], 재료비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4].

〈그림 4〉 2차전지 재료비 원가 구성



그러나 <표 6>의 기술개발 목표에서 보듯이 리튬이온 전지의 출력 및 수명도, 가격 등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치에는 미달되는 상황이며, 안전성의 경우 화재·폭발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 개발 성공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표 6〉 리튬이온전지의 기술개발 목표

구분	성능(Wh/kg)	가격(\$/kW)	수명(년)	안정성
현재 기술 수준	150	800	10	stable
기술개발 목표	250	300	15	very stable

자료 : 수출입은행 조사자료

현재 개발된 전극 물질들은 이미 20년 전에 개발된 물질이며, 차세대 신소재 개발은 상당히 더딘 상황이다. 2010년 출시 예정인 GM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볼트의 경우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많은 기술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전기자동차 시장 규모는 리튬이온 전지 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 좌우 될 것이다.

현재, 완성차는 미국, 일본, 유럽이, 2차전지는 일본, 한국, 중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일본과 미국이며 우리나라는 앞선 전지 기술에 비해 정부의 인프라구축, 전기자동차 개발·양산, 부품소재산업이 이들 보다 뒤쳐져 있다.

그동안 산요, 소니, 파나소닉과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업체들이 2차전지산업을 주도해 오면서, 거대 자본이 필요한 셀 제조는 물론 양·음극활물질과 전해질, 분리막 등 셀 생산의 기반이 되는 소재산업도 함께 성장했다. 반면 우리는 대기업 위주의 셀 제조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낼 뿐 기초 소재 분야는 일본에 비해 매우 뒤져 있는 상황이다. 일본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부분의 기술 독립이 없이는 향후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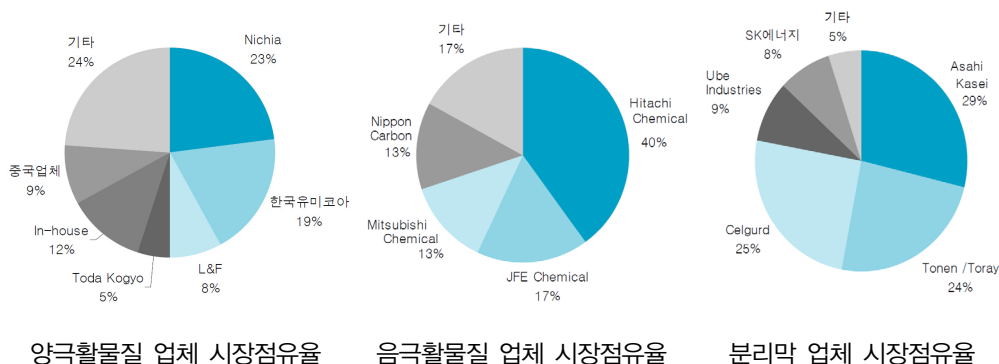
현재, 전지 소재분야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점유율은 분리막 부분의 SK에너지 8%를 제외하고선 거의 전무하며, 국산 부품 비율은 30% 미만으로 파악된다[그림 5]. 따라서 일본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전지 소재 부분의 기술 독립이 없이는 향후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가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소재 중소 전문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표 7>.

〈표 7〉 2007년 국가별 리튬이온전지 기술수준 비교

구 분	일 본	한 국	중 국	미 국
전지제조	100	90~100	50	30
부품·소재	100	50	40	40

자료 : 지식경제부.

[그림 5] 전지 활물질 생산 업체별 시장점유율



자료 : 한국투자증권(2009).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프라다. 충전소 건설 등과 같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정부의 능력도 일본과 미국이 앞서 있다. 특히 일본은 올 상반기에만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155대나 건설했다. 닛산은 독자적으로 올해 말까지 200개의 자사 매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자동차 상용화도 장려하고 있다. 정부가 친환경차량에 대해 77만엔(약920만원)을 보조, 소비자는 닛산의 전기자동차 리프를 299만엔(약3,580만 원), 미쓰비시의 전기자동차 아이미브를 284만엔(약3,400만원)에 살 수 있다. 이 같은 민관의 조화로 일본의 2차전지 업체와 자동차 업체는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앞 다퉈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미국도 정부가 나서 올해 선보일 GM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볼트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자국 산업의 자존심이었으나 일본 업체에 주도권을 내준 뒤 전기자동차로 다시 전세를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기로 파산보호 상태였던 GM이 볼트를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오바마 정부의 산업 전략이 밑바탕이 됐고, 오바마 대통령이 LG화학 미국공장 기공식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우리 뒤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추격해 오고 있다. 가능성만 인정받았던 중국의 2차전지 업체 BYD는 최근 단순히 전지 생산을 넘어 독일의 다임러 그룹과 전기자동차를 공동생산하기로 했다. 인도의 전기자동차 업체 레바는 소형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앞에는 일본, 미국 뒤에는 중국, 인도 사이에 한국이 갇혀 있는 셈이다.

4. 전기자동차용 전지 사업의 필수조건

우선 기존 소형 리튬이온전지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막대한 품질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소형 리튬이온전지를 최초로 개발한 Sony사의 경우 닛산과 전기자동차 공동 개발을 최초로 시도했지만 Sony전지를 채택한 노트북 폭발 사고로 인해 전지사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오점을 남기며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두 번째, 시장 진입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함께 내며 개발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글로벌 파트너로서 LG화학과 삼성SDI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쉽게 시장 진입이

가능했고 중국의 ATL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도 Apple이라는 전략적 파트너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전지 사업에 있어 검증된 솔루션에 기반한 조립 및 공정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전지의 용량은 반도체나 LCD처럼 주기적으로 집적도가 커지고, 화면이 넓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이라도 전지사업에 있어서 대규모 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정 및 품질관리의 경쟁력은 필수적이다.

다음은 소형 전기·전자 기기가 아닌 자동차 부품사업의 관점에서 보는 내구성과 안전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무엇보다 전기자동차용 전지는 자동차의 부품으로서 극한의 내구성이 요구된다. 자동차는 평균수명이 2~3년에 불과한 휴대폰과 달리 10년은 기본이고, 15년의 평균수명과 20년의 사용수명이 요구된다. 사용 환경도 몸에 지니는 모바일 기기와 다르게 극지방 또는 적도 지방에서도 변함없는 성능이 발휘되어야 하며, 전기자동차가 폐차된 이후에도 일정부분 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평균 이익률은 5%안팎이다. 낮은 수준의 이익률을 극복하며 지속성장하기 위해 부품의 대규모 생산을 통한 원가 경쟁력은 자동차 부품 사업의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세 번째, 부품의 기계적 특성에도 익숙해야 한다. 자동차는 2만개 이상의 부품이 모여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는 제품이다. 전기자동차로 진화하면서 부품 수는 혁신적으로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부품 간의 조립 공차 또는 마모에 따른 조립품의 성능이상에 대한 변수는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부품으로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동차 부품의 사소한 품질 문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리콜을 단행한 도요타가 리콜의 원인을 미국의 부품회사에서 만든 가속페달 때문이라고 밝힌 것처럼, 완성차 기업은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부품 업체에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전가하는게 일반적이다. 때문에, 품질 문제로 인한 안전성 결함이 부품 업체에 가져오는 파장은 모바일 기기에 비해 훨씬 파괴적이다.

모바일 기기에 필요한 ‘전원’을 제공하는 소형 전지가 아닌, 자동차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지를 에너지 사업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에너지 사업의 성공 조건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적절한 가격, 신뢰도, 그리고 소비자의 수용성이다. 에너지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석유 가스 위주의 기존 에너지 산업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석유의 고갈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어렵게 하고 심각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소비자의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에너지원으로서 전기자동차용 전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충전될 수 있어야 한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충전 시스템과 전력망에서 나온 전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지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전지에 남아있는 전기를 전력망에 거꾸로 공급하여 에너지 수요공급의 균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충전 효율을 높인 공급 체계는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주유소 네트워크를 뛰어넘어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의 효용을 불편함 없이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친환경 특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사용자의 수용성을 적극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지 사업, 자동차 부품사업, 그리고 에너지 사업 관점에서 바라본 전기자동차용 전지 사업의 필요조건을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전기자동차용 전지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지 사업에 필요한 품질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 사업 파트너의 중요성, 조립 및 공정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의 내구성, 원가 경쟁력, 부품의 안전성과 에너지 사업에서 필요한 공급 안정성과 사용자의 수용성 만족 등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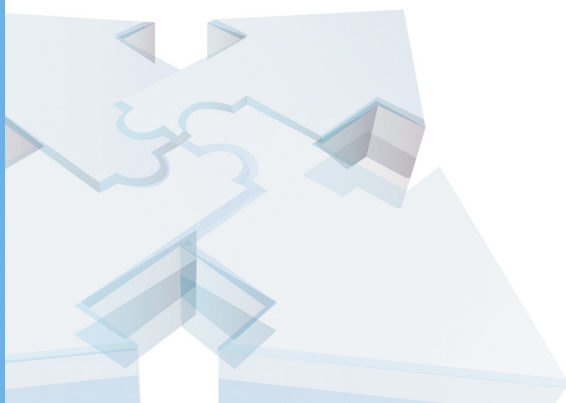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참고문헌

- 노순규, 「녹색성장과 친환경 경영-신성장동력의 이해와 교육」,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 김형진, 「2차전지 기술로드맵」, 전자정보센터 기획리포트, 2006.
- 조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용 리튬이온 이차전지(LIB) 기술동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9.
- 김경유, 「주요국의 전기자동차 개발과 정책동향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분석, 2010.
- 이원식, 「자동차용 대형 Li이온 2차 전지 개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모니터링 분석, 2010.
- 이원식, 「Li 이온 2차전지의 현상과 장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모니터링 분석, 2010.
- 박석준, 「리튬이온 2차전지의 응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모니터링 분석, 2010.
- 대신증권, 「2차전지산업」,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산업분석, 2010.
- 모세준, 「전기자동차 관련 국내부품업체 분석」, 하나산업정보, 선제적 산업기획평가 시리즈 (1), 2009.
- 김상규, 「2차전지산업」, 키움증권 산업분석, 2009.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차전지(Secondary Cell)의 시장 기술 보고서」, 2009.
- 임태윤, 「급부상하는 '자동차용 2차전지」, SERI 경영노트(16), 2009.



Chungnam Economic Trends

FOCUS



세종시 부동산시장 전망

정 재 호 |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조 수 희 |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1. 최근의 세종시 건설현황(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

- 세종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처음으로 분양하는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아파트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청약은 11월 8일~9일 양일간 진행한 결과, 평균 1.08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남
 - 블록별로 A-1블록의 경우 448가구 모집에 254명이 신청하여 저조한 0.57대 1의 접수율이며, 금강 조망권이 강점인 A-2블록은 343가구 공급에 601명이 몰려 1.75대 1의 신청률을 보였음
 - 11월 12일에는 이주대책 대상자, 신혼부부, 생애최초공급대상자, 노부모 부양자, 3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분을, 15~17일에는 일반공급분을 신청받을 예정임
- LH 관계자 등 일부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청약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세종시를 둘러싼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되어 있어 속단할 수 없음

2. 세종시 건설 추진 현황과 문제점

1) 세종시 건설 추진 과정

- 세종시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2년~14년까지 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 등 36개 행정기관을 단계별¹⁾로 이전하여 2030년까지 인구 50만 도시로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
 -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
 -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
 - 2005년 12부 4처 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추진
 - 2006년 12월 도시명 '세종시' 확정
 - 2007년 7월 '세종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지속 추진 대선공약
 - 2010년 3월 정운찬 총리 세종시 수정안 제출, 6월 세종시 수정안 부결
 - 2010년 8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
 - 2010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안)' 국회 계류 중이며, 12월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2) 민간아파트 공급 공동주택용지 미분양

- 지난 9월 15일, LH는 중앙행정타운이 위치한 시범생활권을 중심으로 17필지 888,748㎡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미분양 됨
 - 17필지 중 2개의 필지에 대해 2곳의 건설업체가 입찰하였지만, 마감시간까지 예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17필지 모두 미분양 되었음

1) 1단계(2012년)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물식품부 / 2단계(2013년)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 3단계(2014년) :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 이후 10월 7일, 전체 17필지 중 분양주택용지 9필지만을 대상으로 LH 토지청약시스템에 재공고를 내고 14일~15일 양일간 입찰을 재진행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입찰 당일에 입찰취소 공고 없이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음
- 다시 LH는 10월 17일 분양조건을 완화한다는 자료를 내면서 85㎡이하 용지는 추첨방식으로 매각방식을 변경하고, 11월 8일~9일 양일간 재입찰을 공고하였으나 또다시 별도의 취소 공고를 내지 않고 매각을 중단하였음
 - LH측은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의사가 없어 재입찰 가능성 때문에 공급조건(5년 할부 무이자 조건, 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 6개월 단위로 총 10회 분할 납부, 토지리턴제²⁾)을 완화한 것이라는 자료를 내놓았음
 - 그러나 변경된 매각조건에 대한 논란, 시범생활권의 공공아파트 공급용지를 계약한 10개 건설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입찰을 취소하였음
-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동주택용지는 사실상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 일정 뒤로 연기되었으며, 이전에 제시된 5년 무이자, 토지리턴제 등 완화된 대금납부조건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음

3) 공공아파트 공급용지의 계약 해지 요청

- 세종시 민간 건설 부문을 참여하고 있는 10개 건설업체(현대, 삼성, 대우, 대림, 포스코, 롯데, 두산, 금호, 효성, 극동건설)들은 2007년 LH에서 택지를 공급받아 세종시에 2012년까지 1만 2천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로 계약하였음
 - 이후,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경제도시로 전환했다가 다시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사업성을 담보 받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대금³⁾을 내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한 상태임
 - 이들은 연체료 753억원의 면제와 택지공급 가격의 LH공급가 수준으로 인하, 85㎡이하 택지비의 85%이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 해제시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것과 시범생활권의 부대시설을 LH가 맡아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2) 토지리턴제는 계약한 고객이 일정기간 이후 잔금약정일까지 해약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부한 중도금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가산해 환급해주는 토지 판매제도임.

3) 2010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토지대금 7,398억원 중 64%인 4,727억원과 연체이자 753억원을 합쳐 총 5,480억원의 미납금이 있음.

- 민간건설사는 세종시 주택공급의 65%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당초 2009년 5월 민간 주택부문에 대한 분양에 들어가기로 하였음. 그러나 지금까지 분양을 시작한 업체는 한곳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면 이주기관들이 입주에 본격화되는 2013년부터 주택 및 주민 생활편익시설 등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됨

4) 세종시의 법적인 문제

- 세종시를 원안대로 짓기로 한 계획은 확정되었지만, ‘세종시설치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의 법적지위, 출범시기, 관할구역 등에 관해서 충청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⁴⁾
 - 연기군은 세종시가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관할하는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가 되어야 하며,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단체급 세종시를 만들자고 주장함
 - 공주시도 잔여지역까지 관할하는 기초단체급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를 지지하며, 전체 면적의 8.2%(3개면 21개리)와 인구의 5.3%(6,944명)이 세종시에 편입되므로 정부가 교부세 및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충북도와 충북 청원군은 세종시가 온전한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원군 강내·부용면의 세종시 편입문제에 대해 충북도는 여론조사를, 청원군은 주민투표 방식을 각각 제안하고 있음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해당 지역의 이견

자치단체	법적지위	출범시기	관할구역	기타
충청남도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 (광역)	-	예정지역+주변지역+잔여지역	
충청남도 연기군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 (기초)	이른 시일 안	예정지역+주변지역+잔여지역	청원군 주민투표 반대
충청남도 공주시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 (기초)	이른 시일 안	예정지역+주변지역+잔여지역	편입 인센티브
충청북도	완전한 광역단체	2012년 7월	주민여론 수렴	지방자치법 개정
충청북도 청원군	완전한 광역단체	광역단체 요건 갖춰 출범	주민여론 수렴	지방자치법 개정

4) 한겨레 신문(2010.11.8.), "지워구역 다툼에 세종시 뒤뚱".

3. 세종시 부동산시장 전망

1) 전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 LH가 향후 공동주택용지나 중심상업용지 분양 및 예정된 민간아파트 분양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첫마을 아파트 분양에 충력을 다하고 있고,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가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에서 예상보다 신청률이 높아 주변 부동산시장도 활기를 찾은 분위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와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방향이 세종시의 부동산시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임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먼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로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크며, 최근 분양 중인 첫마을 아파트의 청약신청률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임. 또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강남 및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임. 또한 정치권 내부와 해당지역간의 이견으로 ‘세종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포기, LH의 부채,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 · 부정적 요소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수정안 부결로 불확실성 제거	현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의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고시 등 추진	건설시행 주체인 LH의 120조의 부채로 인한 사업추진의 제약
최근 첫마을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 고조(평균639만원/3.3m ²) 공공분양 청약률 :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8대 1의 경쟁률	민간추진업체들의 미약한 추진의지 1차 공동주택용지 17필지 미분양 민간 건설사의 계약 해지요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상승	물가상승 압박으로 인한 금리 인상 - 대출이자 부담 증가 예상
유동성(부동자금)	정치권내부와 해당 지역 간의 이견차이

2) 세종시 부동산시장의 전망

- 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불확실 요소인 현 정부의 의지(세종시 건설법 통과 여부 등)에 따라 시장 상황의 변동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 방향에서 시장을 전망해 볼 수 있음
- 불확실성이 해소 되는 경우(긍정적인 전망)
 - 법안 통과 등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민간 건설업체들이 활발하게 사업추진에 동참한다면, 세종시 부동산시장은 타 지역보다 가격상승폭이 커질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오송-세종시-대덕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확실하게 진행된다면 높은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부정적인 전망)
 -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프라 구축이 늦어진다면 주택 입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첫마을 아파트 등 기 분양 주택의 가격변화율은 전국 주택가격 변화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세종시건설이 원안이 아닌 다른 형태나 모습으로 변경되거나, 미온적으로 진행되다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면 가격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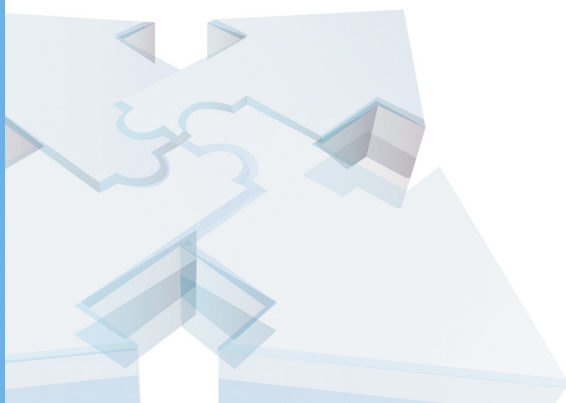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4. 종합

- 최근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세종시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경기회복 가능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등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요소가 있음
- 반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사업을 주관하는 LH공사의 120조 부채로 인한 사업 추진에 대한 제약과 민간건설업체들의 추진 의지 부족 등 부정적인 요소도 병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세종시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병존하고 있으며, 세종시 건설 성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9월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			소 비	물 가(10월)		대외거래		고 용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41.6	136.4	136.9	129.1	120.3	117.8	39,509	34,978	24,911	24,054	3.4
서울	92.3	92.1	157.3	129.1	119.2	117.0	3,758	8,899	5,185	4,960	4.3
부산	126.7	120.0	158.6	133.4	121.2	118.4	1,108	957	1,615	1,557	3.6
대구	124.6	124.2	145.9	103.4	120.1	117.4	433	259	1,212	1,166	3.8
인천	110.8	110.7	100.5	123.1	120.2	118.4	1,741	2,234	1,392	1,324	4.9
광주	155.6	152.6	105.8	132.2	120.8	118.1	964	459	687	668	2.8
대전	122.4	117.9	124.3	116.3	119.9	117.7	304	226	725	707	2.4
울산	128.0	119.9	119.4	119.3	121.6	119.3	5,659	5,169	555	536	3.4
경기	167.9	148.4	199.2	128.3	120.7	118.1	7,045	6,847	5,974	5,756	3.7
강원	116.6	112.1	154.5	154.5	119.9	117.6	129	101	711	695	2.3
충북	152.6	162.5	184.3	130.4	120.4	117.9	923	465	771	756	2.0
충남	230.3	216.4	159.5	144.3	120.7	118.4	4,820	2,225	1,039	1,006	3.2
전북	139.2	139.3	135.3	147.6	121.0	118.5	825	384	845	827	2.1
전남	119.4	122.4	107.7	162.1	120.8	118.4	2,649	2,848	896	880	1.8
경북	107.0	107.4	140.6	148.6	120.9	118.4	3,895	1,556	1,426	1,392	2.4
경남	149.6	152.0	120.0	146.3	121.2	118.6	5,247	2,334	1,591	1,543	3.0
제주	101.3	115.6	78.3	153.9	119.9	117.0	8	13	286	282	1.7

경제동향 [총괄]

경기

- 9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대비 0.3%p 감소
- '09년 5월부터 16개월 연속 상승국면 나타내다 감소세로 반전

산업활동

- 9월 산업생산지수(-0.8%) 감소 및 제품출하지수(+2.1%) 전월대비 증가
- 기계 및 장비,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등의 출하 증가

소비 및 물가

- 9월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 19.6%, 전월대비 12.1% 각각 증가
- 10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0.2% 상승,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0.2% 상승

수출입

- 9월 충남의 수출은 집적회로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 비중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8.6%로 상승세 지속 및 전월대비 -2.3% 감소(48억20백만달러 수출)
-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등의 꾸준한 증가세로 전년동월대비 20.7% 증가, 전월대비 7.4% 증가(22억25백만달러 수입)
- 9월 무역수지 25억95백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감소

고용

- 9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0.6%, 전월대비 0.7% 각각 증가, 취업자 101만명
- 9월 실업인구 전년동월대비(+22.3%) 및 전월대비(+32.0%) 각각 증가, 실업률 3.2%

건설 및 부동산

- 9월 건축허가면적 전월대비(+22.0%) 증가 및 착공면적(-9.1%) 전월대비 감소세 지속
- 10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로 보합, 주택전세가격 0.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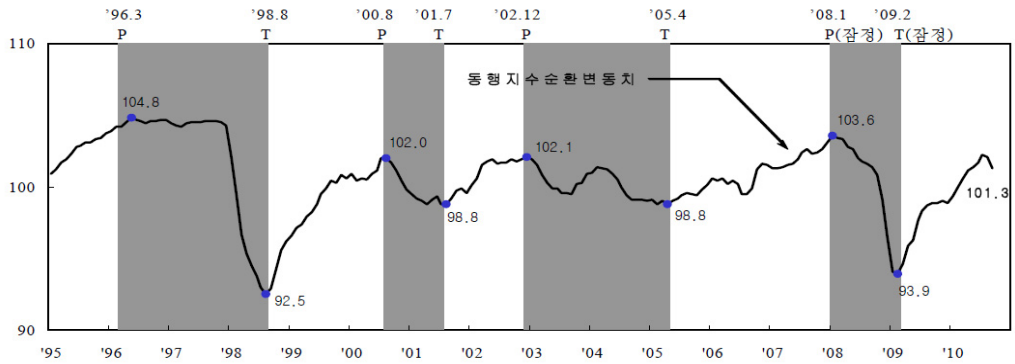
1. 경기

[전국 경기동향]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등 6개 지표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0.4% 하락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3로 전월보다 0.8p 하락

전국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구분	'10.2월	3월	4월	5월	6월 ^p	7월 ^p	8월 ^p	9월 ^p
○ 동행종합지수	127.7	128.9	130.1	131.0	132.0	133.2	133.6	133.1
· 전월비(%)	1.2	0.9	0.9	0.7	0.8	0.9	0.3	-0.4
○ 순환변동치	100.0	100.6	101.1	101.4	101.7	102.2	102.1	101.3
· 전월차(p)	0.7	0.6	0.5	0.3	0.3	0.5	-0.1	-0.8



- 선행종합지수는 종합주가지수, 기계수주액 등 4개 지표가 증가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자본재수입액 등 6개 지표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0.1% 하락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4.9%로 나타났으나, 전년도 선행종합지수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와 금월 선행종합지수의 하락 영향 등으로 전월보다 1.0%p 하락

전국 선행종합지수

구분	'10.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 선행종합지수	127.1	127.3	127.1	127.8	128.2	129.3	129.6	129.5
· 전월비(%)	-0.2	0.2	-0.2	0.6	0.3	0.9	0.2	-0.1
○ 전년동월비	10.3	9.7	8.6	8.0	7.1	6.8	5.9	4.9
· 전월차(%p)	-1.0	-0.6	-1.1	-0.6	-0.9	-0.3	-0.9	-1.0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2010. 9월중 **동행종합지수**는 133.7로 비농가취업자수와 대형판매점판매액지수가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상승**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감소한 101.8**을 나타내며, 하락 반전함
 - 경기순환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09년 5월부터 16개월 연속 상승국면을 나타내다 **감소세로 반전**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10.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 동행종합지수	128.8	129.7	130.4	131.2	132.3	133.1	133.6	133.7
· 전월비	0.9	0.7	0.5	0.6	0.8	0.6	0.4	0.1
○ 순환 변동치	100.6	100.9	101.1	101.3	101.8	102.1	102.1	101.8
· 전월차	0.6	0.4	0.1	0.3	0.5	0.2	0.1	-0.3

주) p는 잠정치임.

- 9월 동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비농가취업자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는 감소를 나타냈으며 이외 지표는 모두 전월대비 증가
 - 비농가취업자수(-0.6%), 대형소매점판매지수(-1.6%) 감소
 - 산업생산지수(+1.0%), 전력사용량(+0.9%), 수출액(+1.7%), 수입액(+0.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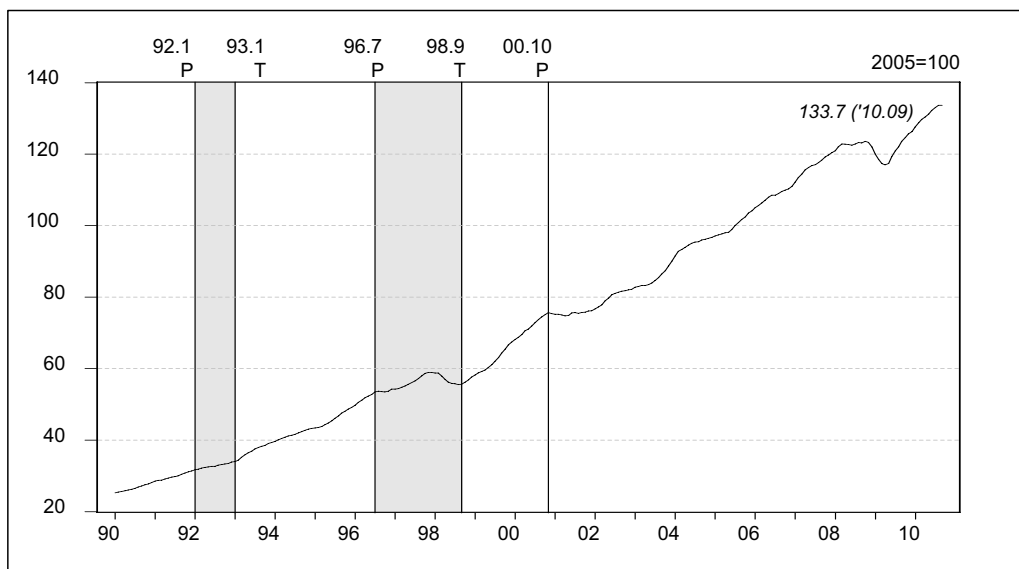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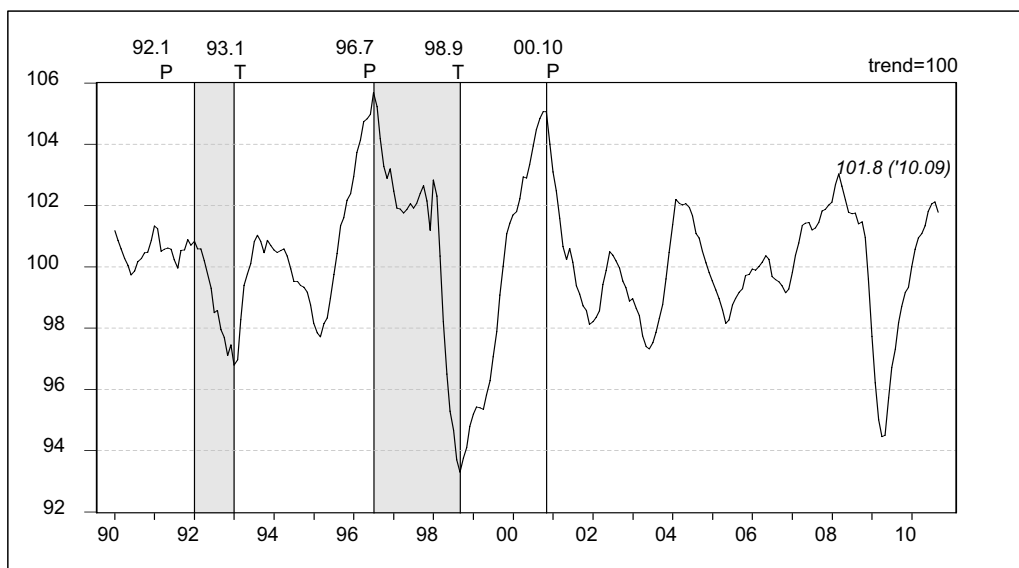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0.2월	3월	4월	5월	6월 ^p	7월 ^p	8월 ^p	9월 ^p
비농가취업자수	0.4	0.6	0.7	0.3	0.3	0.2	0.0	-0.6
산업생산지수	0.6	0.7	0.5	1.2	1.3	0.8	1.7	1.0
대형소매점판매지수	2.3	-0.4	-2.1	-2.5	0.9	2.5	-0.1	-1.6
전력사용량	2.4	2.2	1.8	1.8	1.3	0.6	0.9	0.9
수출액(실질)	1.7	2.3	1.2	2.3	1.2	2.9	2.8	1.7
수입액(실질)	2.3	1.0	0.8	2.6	3.5	0.4	-0.6	0.2

주)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2010. 11월 대전·충남지역 업황전망 BSI는 제조업은 전월보다 상승, 비제조업은 하락하였으며, 자금사정전망 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보다 하락
 - 업황전망 BSI : 제조업 10월 99→11월 100, 비제조업 10월 86→11월 85
 - 자금사정전망 BSI : 제조업 10월 99→11월 92, 비제조업 10월 94→11월 87
-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의 업황은 10월과 11월 모두 개선세를 이어가는 한편 자금사정은 11월에 다소 부진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제조업의 업황 및 자금사정은 10월의 개선세가 11월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조사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0.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101	100	98	100	98	99	100(92)	+1(-7)
매출	114	116	116	112	113	114	112	-2
생산	113	117	115	114	112	110	114	+4
신규수주	106	108	110	110	110	105	106	+1
채산성	97	94	93	94	93	92	92	0
제품재고	94	98	99	100	98	102	102	0
인력사정	90	90	89	86	88	84	86	+2
자금사정	102	99	95	93	95	99	92	-7
외부자금수요	107	112	115	111	114	120	117	-3
자금조달사정	100	103	99	93	95	100	94	-6

주 : ()내는 전국 기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0.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95	90	90	85	78	86	85(88)	-1(+2)
매출	100	97	94	92	91	100	95(99)	-5(-1)
채산성	93	87	90	89	86	88	90(92)	+2(+5)
인력사정	92	92	94	97	97	93	93(91)	0(+1)
자금사정	91	90	90	94	89	94	87	-7
외부자금수요	116	119	118	116	115	116	114	-2
자금조달사정	97	95	97	98	91	95	87	-8

주 : ()내는 전국 기준.

$$BSI^*(\text{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 산업활동

[산업생산]

- 2010. 9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전월대비 0.8% 감소
 - 전기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 및 장비, 영상·음향 및 통신, 의약품,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음

(2005=100.0, %)

구분	2009년	2010년					
	9월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산업생산지수	215.8	214.6	216.6	222.7	223.0	227.1	222.6
전년동월비	37.0	25.0	22.2	20.2	13.4	16.2	3.2
전월비	2.9	-3.4	2.6	3.4	-0.2	4.8	-0.8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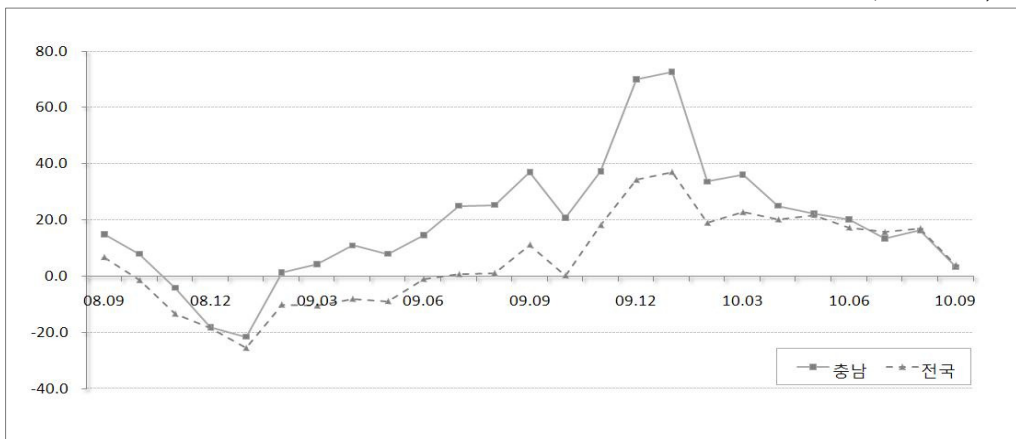
- 기계및장비(+59.7) : 평면디스플레이제조장비, 반도체공정장비, 감속기 등
- 영상음향및통신(+2.3) : TV용LCD, PDP, 백라이트유닛, 에폭시인쇄회로기판 등
- 의약품(+20.1) : 의약품
- 제1차금속(+12.0) : 아연도강판, 냉연강대, 석도강판, 열연대강 등

[감소업종]

- 전기장비(-21.2) : 배전반, 김치냉장고, 전력선, 형광등 등
- 자동차(-8.8) : 중형승용차, 제동장치, 동력전달장치, 자동차용히터 등

전국 및 충남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출하 동향]

- 2010. 9월 충남의 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0%, 전월대비 2.1% 각각 증가
 - 전기장비,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 및 장비,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석유정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음

(2005=100.0, %)

구분	2009년	2010년					
	9월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출하지수	196.0	195.5	196.1	204.5	202.1	208.2	207.7
전년동월비	31.0	22.6	20.2	19.2	14.2	19.4	6.0
전월비	5.3	-4.1	2.9	3.8	-0.3	5.1	2.1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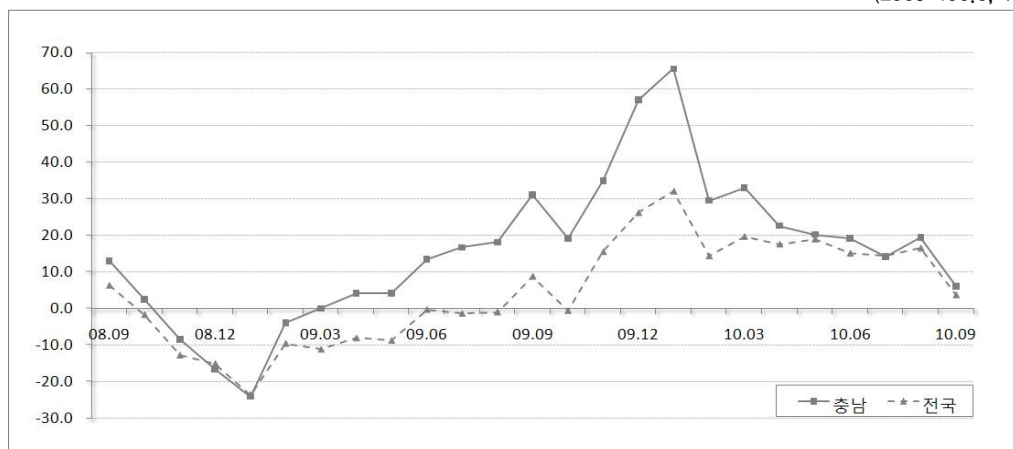
- 기계및장비(+77.2) : 평면디스플레이제조장비, 열처리로 및 전기로, 반도체공정장비 등
- 영상음향및통신(+4.4) : TV용LCD, 백라이트유니트, PDP, 에폭시인쇄회로기판 등
- 제1차금속(+13.7) : 아연도강판, 열연대강, 빌렛, 석도강판 등
- 석유정제품(+9.8) : 나프타, 제트유, 휘발유, 부탄가스 등

[감소업종]

- 전기장비(-12.8) : 배전반, 형광등, 전력선, 절연코드 및 코드세트 등
- 비금속광물제품(-11.6) : 레미콘, 액정모니터유리, 아스콘, 콘크리트전주 및 파일 등

전국 및 충남 출하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재고 동향]

- 2010. 9월 충남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 전월대비 -7.4% 감소
 -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석유정제품, 전기장비,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음

(2005=100.0, %)

구분	2009년	2010년					
	9월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재고지수	128.8	146.0	156.3	162.6	176.8	172.5	157.6
전년동월비	2.4	6.3	19.9	32.8	41.0	26.2	22.4
전월비	-1.8	6.6	6.4	6.2	6.1	-1.7	-7.4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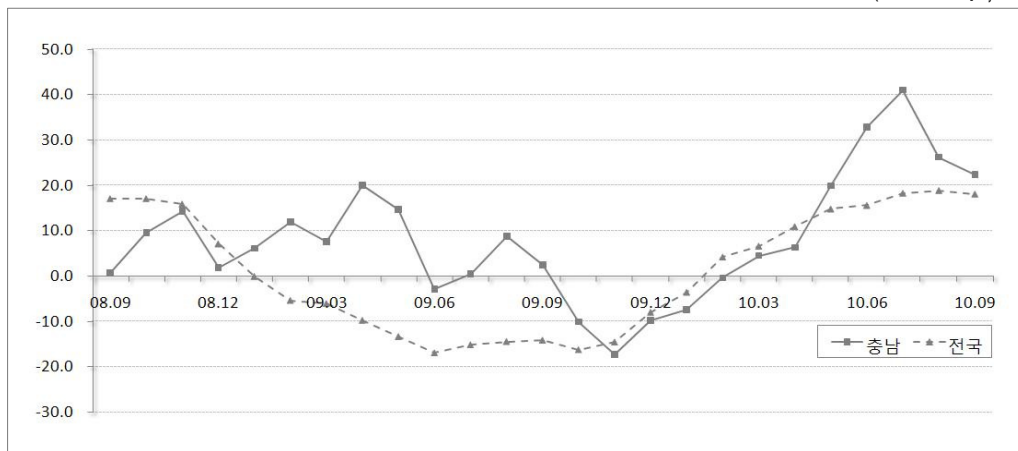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77.2) : TV용LCD, 모니터용LCD, 노트북용LCD, 모스조립 등
- 석유정제품(+96.5) : 경유, 병커C유, 나프타, 부탄가스 등
- 전기장비(+19.1) : 소형2차전지셀, 소형전동기, 비데, 전기밥솥 등
- 비금속광물제품(+54.2) : 액정모니터유리, 벽돌, 콘크리트벽돌 및 블록, 타일 등

[감소업종]

- 화학제품(-2.1) : 벤젠, 파라크실렌, 스티렌모너머, 유기질비료 등
- 자동차(-1.4) : 중형승용차, 자동차용내연기관, 제동장치, 현가장치

전국 및 충남 재고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3. 소비 및 물가

[소비]

- 2010. 9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99,150백만원으로 전월대비 13.7%, 전년동월대비 15.4% 각각 증가, 지수는 144.3 기록
- 내구재 감소,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의 증가로 인해 대형마트 경성판매액은 전월대비 10.2%, 전년동월대비 25.5% 각각 증가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10.7) : 가전제품(-15.0), 컴퓨터(-8.2%), 기타(-4.8%)
- 준내구재(+7.4%) : 가방(+29.0%), 의복(20.3%), 신발(+10.1%), 운동, 오락용품(-11.7%)
- 비내구재(+14.5%) : 화장품(+20.4%), 음식료품(+16.2%), 기타(+4.3%)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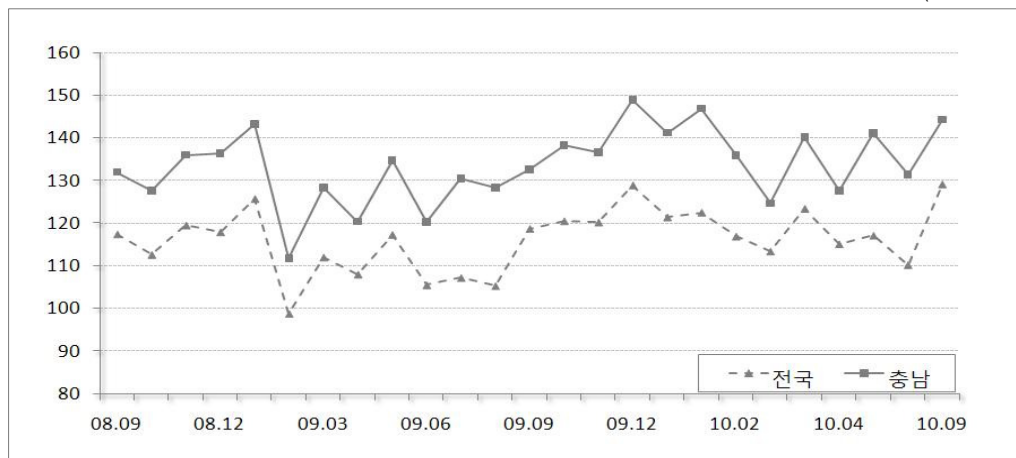
(경성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9월	6월	7월	8월 ^o	9월 ^o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4,618,686	4,529,938	4,624,342	4,385,218	5,303,750		14.8	20.9
충 남	147,192	148,085	165,782	157,006	176,061		19.6	12.1
대형소매점	85,896	83,516	92,599	87,203	99,150		15.4	13.7
대형마트	61,296	64,569	73,183	69,803	76,911		25.5	10.2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 지수

(2005=100)



[물가]

- 2010. 10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로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20.7로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4.6%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50.6로 전월대비 -0.1% 감소, 전년동월대비 50.0% 상승
 - 신선어개, 신선채소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6.7%, 109.5% 상승, 신선과실은 19.5% 상승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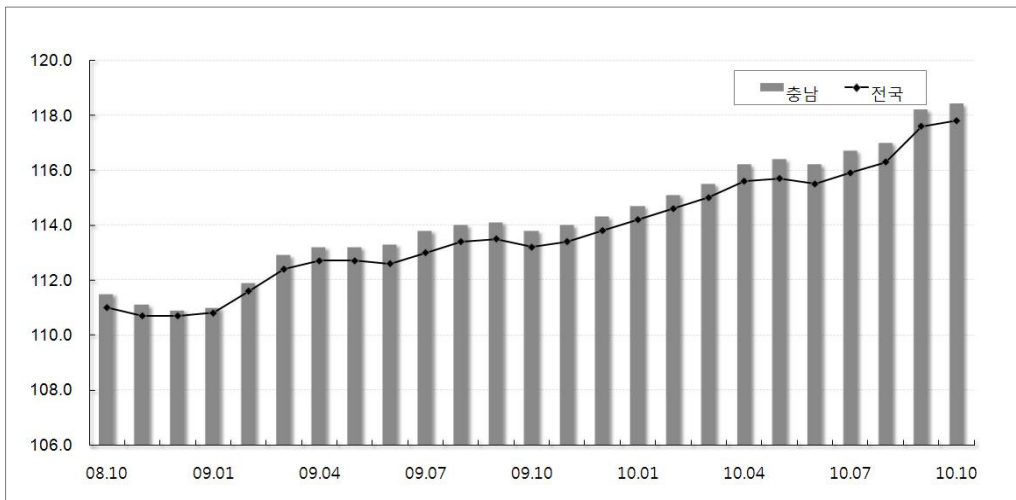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13.2	115.9	116.3	117.6	117.8	4.1	0.2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13.8	116.7	117.0	118.2	118.4	4.0	0.2
상품 상 품	113.7	118.5	118.9	121.5	122.1	7.0	0.2
	112.8	115.4	115.6	115.8	116.0	1.8	0.2
생활물가지수	115.4	118.5	118.8	120.4	120.7	4.6	0.2
신선식품지수	100.4	121.1	127.3	150.7	150.6	50.0	-0.1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0)



4. 수출입

[수출입]

- 2010. 9월 충남의 수출은 집적회로반도체, 자동차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48억20백만달러)하여 증가세 지속(+38.6%→+20.2%)
 - 반도체(+45.5%), 자동차(+153.6%) 등이 증가세 지속에 기인
- 2010. 9월 충남의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등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
 - 원유(+11.0%), 석탄(+3.7%), 석유제품(+18.1%)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20.7%, 전월대비 7.4% 증가

전국 및 충남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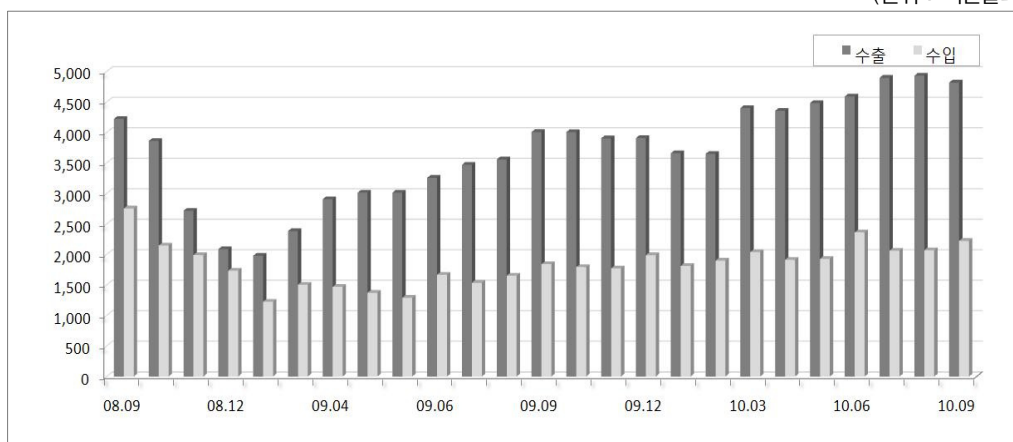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9월	6월	7월	8월	9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33,922	42,066	40,674	37,086	39,509	16.5	6.5	
	수입	29,757	35,396	35,422	35,256	34,978	17.5	-0.8	
	무역수지	4,165	6,670	5,252	1,830	4,531	-	-	
충남	수출	4,010	4,592	4,898	4,933	4,820	20.2	-2.3	
	수입	1,843	2,363	2,064	2,071	2,225	20.7	7.4	
	무역수지	2,167	2,229	2,834	2,862	2,595	-	-	

자료 :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9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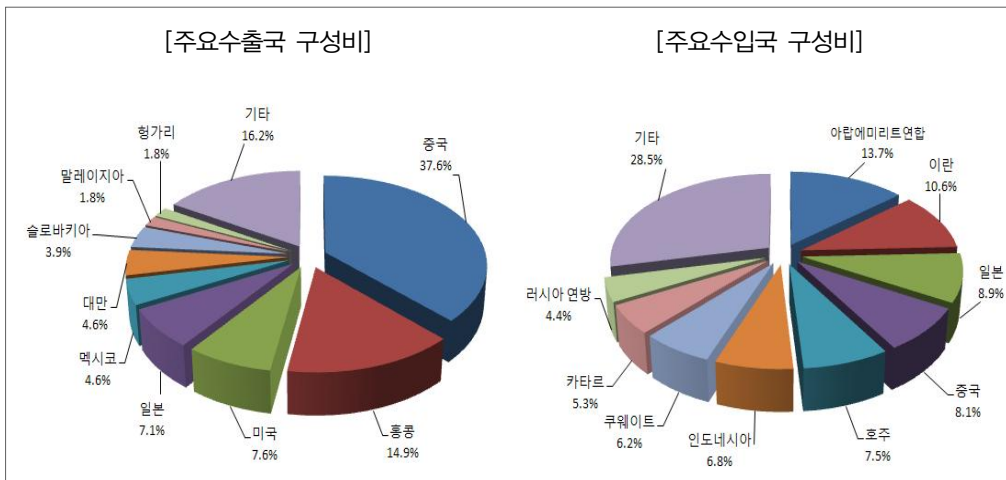
구분	품목명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4,820	20.2	-2.3	100.0
1	반도체	1,649	45.5	6.3	34.2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456	-0.7	-10.0	30.2
3	석유제품	185	-13.8	-33.5	3.8
4	컴퓨터	163	7.0	14.8	3.4
5	합성수지	155	5.0	-4.3	3.2

9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입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2225	20.7	7.4	100.0
1	원유	836	11.0	14.1	37.6
2	석탄	297	3.7	-5.7	13.3
3	석유제품	291	18.1	29.9	13.1
4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104	2472.6	62.5	4.7
5	원동기및펌프	45	27.8	-19.6	2.0

9월 국별 수출입 현황



5. 고용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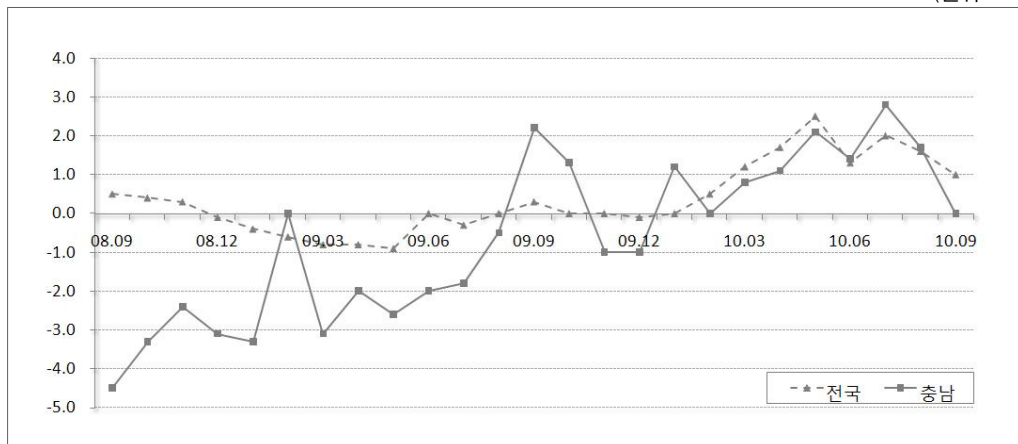
- 2010. 9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 15세이상 인구는 1,618천명으로 전년동월(1,594천명)보다 24천명(+1.5%)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039천명으로 전년동월(1,032천명)보다 7천명(+0.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4.2%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취업자]

- 2010. 9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006천명으로 전년동월과 동일, 전월대비 0.1% 감소
- 광공업(+6.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8%)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5.1%) 부문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음

충남 및 전국의 월별 취업자 전년동월비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2010. 9월 충남의 실업자는 33천명으로 전년동월(27천명)대비 6천명(+22.3%) 증가, 실업률은 전년동월(2.6%)대비 0.6%p 상승한 3.2%

6. 금융

[수신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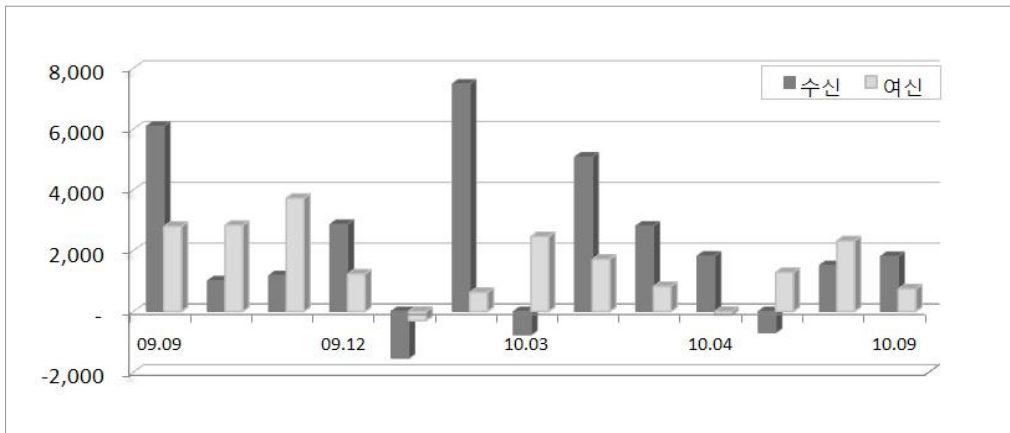
- 2010. 9월 충남의 예금은행 수신은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성수신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감소로 전환, 상호금융의 농산물 출하대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로 전환
- 예금은행 감소로 전환, 비은행기관 증가로 전환
 - 예금은행 : 8월 +2,386억원, 9월 -577억원
 - 비은행기관 : 8월 -871억원, 9월 +2,389억원

[여신부문]

- 2010. 9월 충남의 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가계대출 감소로 감소 전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상호금융 농업자금대출 상환 등으로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폭 축소
- 예금은행 감소 전환, 비은행기관 증가폭 축소
 - 예금은행 : 8월 +753억원, 9월 -15억원
 - 비은행기관 : 8월 +1,569억원, 9월 +758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부도율]

- 2010. 9월 충남의 부도율은 0.09%이며 전월대비 0.13%p 하락
 - 지역별로는 천안 0.10%, 홍성 0.27%, 논산 0.07%, 공주 0.00%, 서산 0.02% 기록

7. 건설 및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2010. 9월 충남의 건축허가 면적은 380천 m^2 로 전월대비 22.0%, 전년동월대비 28.2% 각각 감소
- 9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32.9%), 공업용(29.7%), 상업용(13.6%)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m^2)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9월	6월	7월	8월	9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529,197	866,573	580,512	487,208	379,786	-28.2	-22.0	
주거용	198,011	111,125	132,050	103,542	125,113	-36.8	20.8	
상업용	80,927	150,977	145,247	93,581	51,638	-36.2	-44.8	
농수산물	25,867	59,937	78,233	36,727	46,455	79.6	26.5	
공업용	118,862	458,628	138,889	130,556	112,889	-5.0	-13.5	
기 타	105,530	85,906	86,093	122,802	43,691	-58.6	-64.4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

- 2010. 9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393천 m^2 로 전월대비 9.1% 감소,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9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40.6%), 주거용(17.8%), 상업용(13.5%)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m^2)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9월	6월	7월	8월	9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381,099	751,798	461,472	432,427	393,149	3.2	-9.1	
주거용	96,605	108,025	74,656	72,635	69,932	-27.6	-3.7	
상업용	71,354	97,558	116,024	84,053	53,032	-25.7	-36.9	
농수산물	26,356	65,146	58,149	43,427	20,179	-23.4	-53.5	
공업용	98,675	439,021	126,333	127,264	159,473	61.6	25.3	
기 타	88,109	42,048	86,310	105,048	90,803	3.1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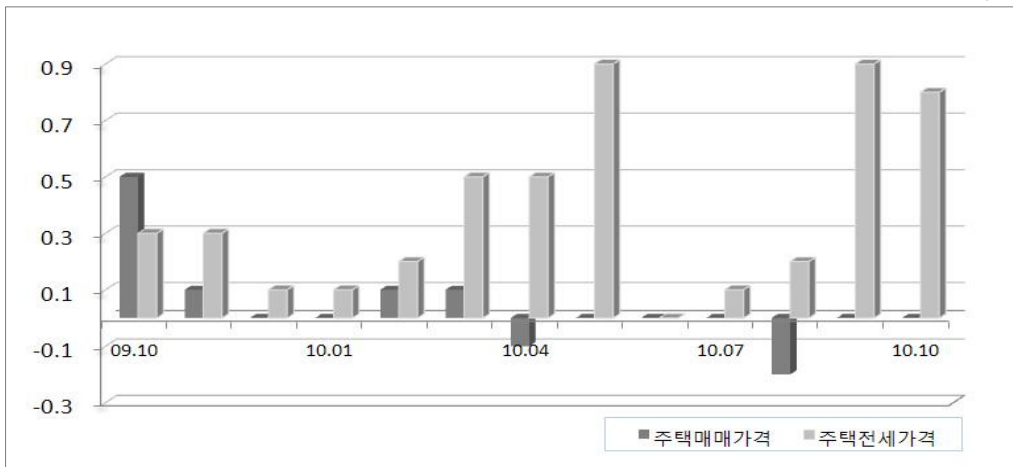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2010. 10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하였으나, 2달 연속 전월대비 보합(0.0%)으로 나타남
 - 계절적인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보합으로 나타남
 - 천안 서북구(+0.1%)와 논산(+0.1%) 지역이 주요 상승지역임
- 2010. 10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은 4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전월대비 증가(+0.8%)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논산(+2.0%), 아산(+1.7%) 지역이며, 논산은 기존 아파트 전세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논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근로자 수요 유입으로 물량이 부족해져 단독·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함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율

(단위 : 전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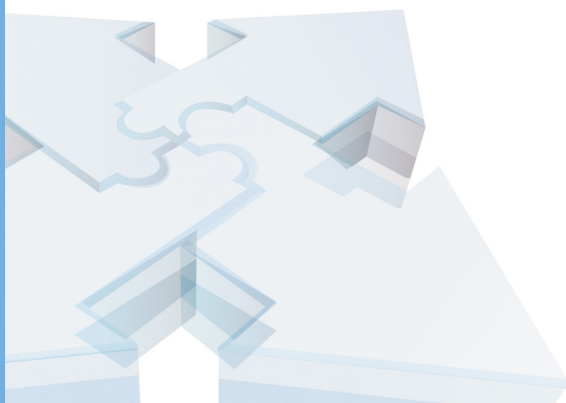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10.10.19~10.21] 제9차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 대구EXCO에서 열리는 행사에 도내 전기전자, 기계, 생활용품, 섬유, 미용, 식품업체 10개사가 참여, 세계 각지에서 온 동포 기업인과 상담활동을 벌여 상담 150건, 상담액 500만 달러 성과
 - 총40여 개국의 400여 기관·업체에서 3,300여 명의 국내외 동포 기업인 참가
 - ※ 광천솔피식품, 누리영어조합법인, 쓰리제어, (주)올팩, 우주수산유통, 위즈메디컬, 천혜땅식품, 청정인삼, 한국대산(주), 해락원영어조합법인

['10.10.20]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 개최

- 충남도 주최(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협의회 주관)로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공무원, 도민대표, 전문가, NGO, 정당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민선5기 도정환경 평가 및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도를 점검하고, 분야별 10대 핵심과제 선정
 - ※ 경제통상분과(3과제) : 충남 사회경제 지원조직 및 추진체계 구축,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 주민주도 협동조합 육성

['10.10.20] 도정평가단 경제통상분과위원 현장평가

- 경제통상분과위원 38명이 참석하여 송산 일반산단과 당진화력, 가건모(예비사회적기업) 등 사업현장을 방문, 현황청취 및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평가 실시

['10.10.21] 2010 충청남도 장애인채용박람회

- 충남도 주최,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충남일자리종합센터·아산시일자리지원센터 주관으로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구직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0개 업체가 현장면접·채용, 사업체 홍보 등 시행

['10.10.21] 석유화학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지식경제부·충남도 주최, 한국화학연구원 주관으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석유화학 전문가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울산·여수·대산단지 고도화사례 및 향후계획 등 논의

['10.10.21] 충남, 명품 희망마을 금산군·청양군 2곳 선정

- 행정안전부 공모 「희망마을만들기 명품사업」에 금산군(명품 희망마을 아토피 치유 에코빌리지 조성)과 청양군(명품 희망마을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선정
- ※ 전국 25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당 국비 2억원 지원

['10.10.22~10.26] 중국 쓰촨성,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 중국 서부 국제박람회(쓰촨성 청두) 행사기간 중 바이어 800여명을 초청, 도내 48 업체(공산품 30, 농식품 18)가 참여하여 상담과 홍보·판매 실시
- 개막식에는 충남도 추한철 투자통상실장, 김일두 駐청두 대한민국 총영사, [우웬 쿠이] 중국 쓰촨성 박람국 부국장, [왕유핑] 쓰촨성 무역촉진회 부회장, [류슈화] 청두시 박람국 부국장 등 중국 쓰촨성 정부 및 기업관계자 참석
- ※ 수출상담 48업체 24,998천\$, 수출계약 6업체 11,929천\$, 현장판매액 53천\$ 성과 (태성화학, 벨금속, 예산농산, 보령시청(머드화장품), 대명실업, 천혜당식품 등)

['10.10.27] 제10차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대구 EXCO에서 장관(차관보), 지역일자리 창출 포럼위원 및 시도 일자리 담당 실국장·과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과제 설명과 사례 발표, 대국민 토론 등 실시

['10.10.27] 제17차 당진경제포럼 조찬세미나

- 당진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웨딩의 전당 가원(당진)에서 주요 기관·단체장 및 포럼 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하여 '당진과 철강 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개최

['10.10.27] CVCE(Crystal Valley Conference & Exhibition) 2010 개최

- 충남도 주최, 충남디스플레이협력단과 충남디스플레이산업기업협의회 주관으로 선문대학교에서 충청남도 및 산학연 관계자 등 400여명 참석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비즈니스 및 학술 컨퍼런스, 산업 전시회 등(32개 기업 82부스) 개최

['10.10.27~10.28] 충청남도 기업인연합회 워크숍

- 충청남도 기업인연합회 주관으로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1박 2일간 도내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 특강, 성공사례 발표 등 개최

['10.10.28] 2010년도 3/4분기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하여 「50% 할인 행사의 날」 및 「옥외 가격 표시 특구」 지정 운영 우수사례 발표 등 실시

['10.10.29] 제94차 충남경제포럼 조찬세미나

- 충남도 주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천안 불당동)에서 경제포럼회원, 주요기관장, 회원업체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2011년 경제 및 경영환경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

[10.10.29] 충남형 사회적 기업 17개 기업 선정

-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충남형」 사회적 기업 17개기업(단체)를 선정·발표
 - ※ (주)드림 앤 챌린지, (주)즐거운 밥상, 전통연희단 난장엔판, 국선명상협회 자연건강 증진사업단, 한국지역사회복지회 새하얀 세탁공장 사업단, (주)온양온천시장, (주)희망 우리사향 서비스 세탁사업단, (주)깨끗한 사람들, (유)금산주거복지센터, 세종중앙재단 다향돌봄센터, 밤뜨래영농조합,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얼굴있는 먹거리 영농조합, (주)나눔건축, 청양칠갑산토마토영농조합,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주)지랑

[10.10.30] 2010 노사민정 한마당

-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기업인, 노동계, 정계 대표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500여명이 참석하여 노사 발전 워크숍 및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10.10.30] 2010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

- 충남도 주최, 전국주부교실충청남도지부 주관으로 충남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소비자·여성·사업자단체 등 450여명이 참석하여 유공자 표창(14명), 결의문 낭독, 사례발표, 특강 등(제47회 저축의 날 병행)

['10.11.2~11.3] 충남 자동차 산학연관 페스티벌

- 지식경제부, 충남도, 충남테크노파크 공동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의 예산군 이전 기념행사와 함께 400여 명이 참석하여 인재발굴, 자동차 공학회 학술회, 중소기업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MES) 구축 성공사례 포럼, 충남자동차공업부품산업 육성 추진단 워크숍 등 행사 진행
- ※ 2012년까지 사업비 259억원 규모(2만2,707㎡)에 30여개 기업연구소 입주 예정

[10.11.3~11.4] 2010 충남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및 직업교육박람회

-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공주정명학교와 백제체육관에서 도내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1,000여 명이 참가하여 전시관, 판매·체험관, 홍보관 등 운영

['10.11.8] 충청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워크숍

- 공주대학교 주관으로 공주대에서 충남·충북·대전 등 참여교수 및 사업단 관계관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NEW-IT 부품과 부품산업용 금형 및 열처리 기술지원 사업을 주제로 워크숍 개최

['10.11.8] 제10차 충남경제연구회

- 충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충남형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유관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 토론 진행

['10.11.9~11.10] 충남 전통시장 상인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

- 충남도 주최, 충남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상인대표 및 회원, 시·군 담당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친절 경영마인드, 전통시장 상인의 역할과 과제), 우수사례 발표(서산 동부시장, 온양 전통시장), 분임토의(상인조직 강화, 상품개발, 경영선진화 시스템 개발, 시설 현대화) 등 진행

['10.11.9] 2010년도 제3차 충남고용포럼

-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사)충남벤처협회 주관으로 선문대학교에서 산·학·연 관계자 240여 명이 참석하여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및 고용현황을 주제로 포럼 진행

- 지역유망기업 및 태산LCD와 크루선택의 기업설명회, 2010년 충남지역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 선정기관 2곳(호서대 산학협력단, 천안YWCA)의 사업발표 등

['10.11.11] 2010 산학연관 합동세미나

- 충남도 주최, 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충남공무원교육원(공주)에서 기업·대학·유관기관 및 단체와 도·시군 공무원 등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합동대토론과 5개 분임별 경제현안 토의 진행
- 충남테크노파크 내 「컨텍센터」 활성화, 중소기업 R&D기관 만남의 장,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역할 강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선정지표 및 매뉴얼의 개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개별 공장입지에 관한 통합지침과 충남 산업지도 작성 등의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산학연 T/F팀 구성 계획

['10.11.16~11.19] 2010 충남 공공디자인 대전

- 충남도와 공주시 주최,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와 충남공공디자인협회 주관으로 공주시 디자인카페(舊 공주읍사무소)에서 수상작 63개 작품과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품 30점 등 총 93점의 작품 전시
- ※ 인증제품 : 가로등 4점, 파고라 6점, 벤치 5점, 벤치 5점, 자전거거치대 2점, 휴지통 1점, 플랜터 1점, 볼라드 1점, 수목보호관 1점, 버스정류장 2점, 방음벽 1점, 트랜치 커버 1점 등

['10.11.17]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세미나

-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산업연구원·광역위원회·테크노파크·선도산업지원단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관 13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산업 육성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토론

['10.11.17~11.19] 2010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경북도, 경주시, 한국경제신문 주최)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지구의 미래 : 그린에너지, 그린혁명’이라는 주제로 세계 30여 개국의 전문가 및 기업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풍력, 수소·연료전지, 원자력 등에 대한 정책 발전방안과 기업유치설명회, 전시회 등 개최

['10.11.18] 대전상공회의소 목요조찬회

- 대전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유성호텔에서 행정, 정부투자, 교육, 연구, 금융 등 각급 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세미나 개최

['10.11.18~11.19] 2010 충청권 지식서비스발전연구회 워크숍

- 충남·충북·대전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유성호텔에서 충청권 발전연구회 회원사, 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여 지식서비스 국가정책 방향 소개 및 차년도 운영계획 등 협의

['10.11.19~11.24] 제24회 충남산업디자인대전

- 충남도 주최 충남산업디자인협회 주관으로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산업 디자인 관련 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2010 청년 CEO 500 프로젝트 창업·창직 지원

- 개요 : 2014년까지 청년 1인 창조기업(창업) 500개 육성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충남도내 거주자 및 충남소재 학교 재학생
- 모집분야 : 지식서비스 및 기술 창업 분야
- 주관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 모집기간 : 2010. 11. 8~11. 26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제공, 월 70~100만원의 창업활동비, 경영자금 융자,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제품 홍보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주관기관으로 문의(042-251-2688)

2011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 투자규모 : 93개 사업 2,023억원
- 기본전략
 - 전략산업 중심의 지속적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기 구축된 인프라 및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업지원 강화
- 주요내용
 - 녹색성장 및 지역밀착형 R&D 사업 추진 강화(28개 사업 980억원)
 - 지역 수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10개 사업 194억원)
 - 지역기반 육성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강화(42개 사업 728억원)
 - 인프라 구축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13개 사업 121억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전략산업과로 문의(042-606-5693)

2010 4/4분기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금리 조정

- 창업자금 및 경쟁력강화자금(5.0%→4.4%), 혁신형 자금(3.8~4.0%→3.3~3.5%), 기업회생자금(4.0%→3.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기업지원과로 문의(042-220-3307)

2011 볼로냐 미용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 개최기간 : 2011. 3. 18~3. 21, 이탈리아 볼로냐 전시장
- 신청자격 : 충남도내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 제조업체
- 모집규모 : 3개사(미용제품 전반)
- 신청 : 2010. 11. 12~11. 18, 중소기업진흥공단(100810p@sbc.or.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통상지원과로 문의(042-251-2309)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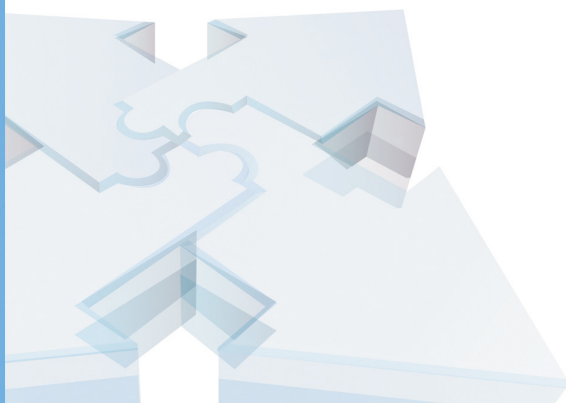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 <http://www.seri.org>
 - 글로벌 경제위기 2년의 평가 : 위기는 끝났는가
 - 태블릿 PC의 충격과 미디어의 변화
 - 미중 갈등관계의 청산과 세계 경제의 발전
 - 가치창출의 새로운 원천, 집단지성
 - 신흥경제권의 지속성장 가능성 점검
- 현대경제연구소(VIP 리포트) : <http://hri.co.kr>
 - 아시아 인프라 시장 트렌드와 시사점
 - 독일 및 일본 사례로 본 서비스수지 개선방안
 - 한국의 해외자원 확보의 한계와 위협
 -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이 성장잠재력 제고의 원천이다
- LG경제연구소(ERI 리포트) : <http://www.lgeri.com>
 - 생각의 힘이 강한 조직 만들기
 - 100대 기업을 통해 본 중국의 산업지형도 변화
 - 미·중 환율 갈등과 원화 환율
 - 전기자동차용 리튬 이온전지, 모바일용 전지와 판이한 게임 룰
 - 'Next China' 인도 경제의 기회와 위협
 - 잠재적인 경쟁력 위협요인, 금속자원 리스크
- 한국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 방안 - 주류산업을 중심으로
 - 광역경제권 정책의 점검과 향후 정책과제
 - 주요국의 전기자동차 개발과 정책동향 및 시사점
 - 미국 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 진단과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if.re.kr>
 -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민금융정책의 방향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총생산 (GDP) ¹⁾	억달러	8,447	9,511	10,493	9,287	—
GDP 성장률 ²⁾	%	16.9	12.6	10.3	△11.5	—
국민총소득 (GNI) ¹⁾	억달러	8,439	9,525	10,512	9,347	—
GNI 성장률 ²⁾	%	16.5	12.9	10.4	△11.1	—
1인당 GNI ¹⁾	달러	17,531	19,722	21,695	19,231	—
경제성장률	%	4.0	5.2	5.1	2.2	—
산업구조						
농림어업	%	3.3	3.2	2.9	2.5	—
광공업		27.8	27.4	27.5	28.3	—
전기가스·수도사업		2.3	2.3	2.2	1.8	—
건설업		7.6	7.5	7.4	7.0	—
기타 서비스업		59.0	59.7	60.0	60.3	—
제조업 평균가동률	%	79.7	80	80.1	77.2	—
취업자	천명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농림어업	%	7.9	7.7	7.4	7.2	7.0
광공업		18.1	17.6	17.2	16.9	16.4
건설업		7.9	7.9	7.9	7.7	7.3
기타 서비스업		65.7	66.5	67.2	67.9	69.3
실업률 (ILO기준)	%	3.7	3.5	3.2	3.2	3.6
경상수지		14,981	5,385	5,876	△6,406	40,418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2,683	27,905	28,168	5,994	54,381
서비스수지		△13,658	△18,961	△19,768	△16,734	△16,973
소득수지		△1,563	534	1,003	5,107	3,741
경상이전수지		△2,482	△4,093	△3,527	△773	△731
수출액	억달러	2,844	3,254	3,715	4,220	3,635
수입액		2,612	3,094	3,568	4,352	3,231
총저축률	%	32.1	30.8	30.8	30.7	—
민간비중	%	30.5	32.5	34.4	30.6	—
정부비중		69.2	67.5	65.6	69.4	—
총자본형성	십억원	247,511	256,866	269,188	286,918	—
국내비중	%	19.3	18.3	16.7	16.5	—
국외비중		80.7	81.7	83.3	83.5	—
최종소비지출	%	65.9	67.7	69.0	69.1	—
민간비중	%	20.2	20.5	21.0	21.3	—
정부비중		79.8	79.5	79.0	78.7	—
생산자물가상승률	%	2.1	0.9	1.4	8.6	-0.2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2.2	2.5	4.7	2.8

주 : 1) 당해년 경상가격 2) 2000년 기준년가격.

일 경제지표 (2010.11.1기준)

금리

구 분	'08말	'09말	'10.9말	10.28	10.29	11.1	전일비	'09말비
콜금리(1일),%	3.02	2.01	2.27	2.24	2.26	2.24	△0.02	0.23
CD(91일),%	3.93	2.86	2.66	2.66	2.66	2.66	0.00	△0.20
국고채(3년),%	3.41	4.41	3.32	3.23	3.23	3.35	0.10	△1.06
국고채(5년),%	3.77	4.92	3.71	3.79	3.79	3.96	0.10	△0.96
회사채(3년, AA-),%	7.72	5.53	4.26	4.01	4.01	4.12	0.09	△1.41

주가

구 분	'08말	'09말	'10.9말	10.28	10.29	11.1	전일비	'09말비
KOSPI지수	1,124.47	1,682.77	1,872.81	1,907.87	1,882.95	1,914.74	1.69%	13.79%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32,692	42,856	62,980	56,000	60,671	60,741	70	17,885
KOSDAQ지수	332.05	513.57	492.75	527.36	527.36	527.98	0.29%	2.81%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380,648	301,051	45,221	43,912	40,710	95	△40,614	

※ 기간중 : '08말('08.1.1~12.31), '09말('09.1.1~12.31), '10.9말('10.9.1~9.30), 11.1('10.1.1~11.1).

환율

구 분	'08말	'09말	'10.9말	10.28	10.29	11.1	전일비(%)	'09말비(%)
₩/US(종가)	1,259.50	1,164.50	1,140.20	1,123.80	1,125.30	1,116.60	+0.78	+4.29
선물환(NDF, 1개월물)	1,257.60	1,165.90	1,141.70	1,125.40	1,126.70	1,118.10	+0.77	+4.28
₩/¥100	1,396.81	1,264.52	1,368.13	1,377.54	1,394.94	1,388.29	+0.48	△8.91
¥/US	90.17	92.09	83.34	81.58	80.67	80.43	+0.30	+14.50
US/EUR	1.4093	1.4325	1.3572	1.3825	1.3875	1.3993	+0.85	△2.32
CNY/US	6.8506	6.8279	6.6909	6.6866	6.6758	6.6755	+0.00	+2.28

※ '09년 평균 환율 : (₩/US) 1,276.5원, (₩/¥100) 1,363.5원

※ '10년 평균 환율('10.1.1~현재) : (₩/US) 1,160.0원, (₩/¥100) 1,310.2원

※ 전일비(%) 및 '09말비(%)에서 절상·절하는 대미통화 기준(+는 절상, △는 절하).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08말	'09말	'10.9말	10.28	10.29	11.1	전일비	'09말비
LIBOR(3월, \$)	1.43	0.25	0.30	0.29	0.29	0.29	0.00	0.04
T/NOTE(10년물)	2.21	3.83	2.47	2.50	2.52	2.52	0.01	△1.32
DOW	8,776	10,428	10,015	10,835	10,788	10,830	△0.44%	3.45%
NIKKEI	8,860	10,546	8,824	9,559	9,369	9,404	0.37%	△10.83%
SANGHAI COMP	1,821	3,277	2,639	2,611	2,656	9,155	1.72%	△18.96%
외평채가산금리 (bp, 2013년물)	405	59	169	150	150	150	0	91
CDS (bp, 5Y)	316	86	123	102	101	99	△1	15
CRS (% , 1Y)	1.10	2.25	2.18	1.83	1.73	1.75	0.02	△0.50

유가 · 곡물 · 원자재 · 반도체가격

구 분	'08말	'09말	'10.9말	10.28	10.29	11.1	전일비	'09말비
DUBAI (\$/bbl)	36.45	78.04	77.24	80.23	79.86	80.53	△0.37	1.82
WTI 2월 선물 (\$/bbl)	50.57	79.36	79.97	82.18	81.43	82.95	△0.75	2.07
원당(센트/파운드)	11.8	26.95	23.48	28.71	29.12	29.45	1.43%	8.05%
밀 (센트/부셸)	611	542	674	718	717	703	△0.14%	32.46%
대두 (센트/부셸)	972	1,049	1,107	1,236	1,236	1,235	0.00%	17.88%
옥수수 (센트/부셸)	407	415	496	579	582	577	0.52%	40.41%
동 (\$/톤)	3,050	7,377	8,055	8,340	8,220	8,335	△1.44%	11.43%
알루미늄 (\$/톤)	1,520	2,242	2,348	2,338	2,330	2,398	△0.34%	3.93%

※ '09년 평균 유가 : (Dubai) 61.92\$, (WTI) 62.09\$

※ '10년 평균 유가('10.1.1~현재) : (Dubai) 76.41\$, (WTI) 78.07\$.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474,973	513,613	551,484	582,435	—
전국대비 구성비 ²⁾	%	5.46	5.85	5.96	6.24	—
GRDP 성장률 ²⁾	%	9.6	12.6	7.6	7.0	—
1인당 GRDP	만원	2,476	2,664	2,848	2,996	—
산업구조	—					—
농림어업	%	8.2	7.6	6.7	6.4	—
광공업		43.4	44.7	45.9	47.1	—
전기가스수도업		4.1	3.9	4.4	3.1	—
건설업		9.6	9.3	8.7	9.2	—
서비스업 및 기타		34.7	34.4	34.5	34.3	—
15세이상인구	천명	1,485	1,517	1,547	1,564	1,588
경제활동인구	천명	956	991	1,021	996	991
취업자	천명	931	967	998	973	961
농림어업	%	23.5	23.6	21.9	19.5	18.8
광공업		15.8	15.5	17.0	17.4	17.1
건설업		6.1	5.8	6.6	5.7	5.8
서비스업 및 기타		54.6	55.1	54.5	57.3	58.3
실업자	천명	25	24	23	24	2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9	526	526	568	597
경제활동참가율	%	64.4	65.3	66.0	63.7	62.4
실업률	%	2.6	2.4	2.2	2.4	3.0
고용률	%	62.7	63.8	64.5	62.2	60.5
무역수지	백만달러	15,656	16,599	21,149	13,380	20,299
수출액	백만달러	33,520	38,961	47,823	42,936	39,428
수입액		17,863	22,362	26,674	29,556	19,129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6	2.4	4.9	2.7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천안시	69,829	77,731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공주시	14,327	15,390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보령시	14,996	15,391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아산시	53,853	55,393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서산시	31,975	32,940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논산시	15,389	14,733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계룡시 ¹⁾	1,764	2,311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금산군	7,422	8,328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연기군	10,999	11,233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부여군	10,189	9,863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서천군	10,427	10,013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청양군	5,353	5,059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홍성군	10,004	10,560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예산군	8,697	9,383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태안군	9,362	10,394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당진군	18,184	19,709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충청남도	292,771	308,432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7 09	118.3	0.6	7.7	7.4	101.4	0.2
10	119.2	0.8	7.9	7.5	101.8	0.4
11	119.8	0.4	7.4	7.4	101.8	0.1
12	120.4	0.5	7.1	7.2	102.0	0.1
2008 01	120.9	0.5	6.7	7.0	102.1	0.1
02	122.0	0.9	7.3	7.3	102.7	0.6
03	122.9	0.7	7.4	7.4	103.0	0.4
04	122.8	-0.1	6.1	6.6	102.6	-0.4
05	122.6	-0.1	4.9	5.7	102.2	-0.4
06	122.5	-0.1	3.8	4.9	101.8	-0.4
07	122.8	0.3	3.6	4.5	101.7	-0.0
08	123.2	0.3	3.4	4.2	101.8	0.0
09	123.1	-0.1	2.6	3.6	101.4	-0.3
10	123.6	0.3	2.6	3.4	101.5	0.1
11	123.3	-0.2	1.6	2.7	101.0	-0.5
12	122.0	-1.1	-0.8	1.2	99.6	-1.4
2009 01	120.0	-1.6	-3.9	-0.8	97.8	-1.9
02	118.5	-1.3	-6.1	-2.4	96.3	-1.5
03	117.4	-1.0	-7.3	-3.7	95.1	-1.2
04	117.0	-0.3	-7.2	-4.3	94.6	-0.5
05	117.4	0.3	-5.9	-4.2	94.6	0.1
06	119.3	1.6	-2.4	-2.7	95.9	1.2
07	120.9	1.4	0.5	-1.3	96.9	1.0
08	122.1	0.9	2.5	-0.2	97.5	0.6
09	123.6	1.2	4.9	1.4	98.4	0.9
10	124.7	0.9	6.6	2.7	98.9	0.6
11	125.7	0.8	8.0	3.9	99.4	0.5
12	126.3	0.5	8.7	4.7	99.6	0.2
2010 01	127.6	1.0	10.2	5.9	100.0	0.7
02	128.8	0.9	11.0	7.0	100.6	0.6
03	129.7	0.7	11.1	7.7	100.9	0.4
04	130.4	0.5	10.4	8.2	101.1	0.1
05	131.2	0.6	9.8	8.7	101.3	0.3
06	132.3	0.8	9.6	9.3	101.8	0.5
07	133.1	0.6	9.1	9.3	102.1	0.2
08	133.6	0.4	8.4	9.0	102.1	0.1
09	133.7	0.1	6.9	8.1	101.8	-0.3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7	788,010	11.2	-	544,694	13.8	-
2008	926,919	17.6	-	660,475	21.3	-
2009	1,013,880	9.4	-	729,608	10.5	-
2009 3/4	252,688	7.4	4.1	189,818	7.8	8.9
4/4	273,383	9.7	8.2	187,292	9.0	-1.3
2010 1/4	276,147	12.7	1.0	201,959	13.3	7.8
2/4	258,380	6.4	-6.4	191,991	10.2	-4.9
3/4	278,952	10.4	8.0	219,897	15.8	14.5
2008 09	81,758	2.3	6.4	59,216	2.7	0.0
10	78,795	15.0	-3.6	53,995	18.1	-8.8
11	84,477	25.4	7.2	57,367	31.6	6.2
12	86,023	13.1	1.8	60,458	18.6	5.4
2009 01	91,284	27.6	6.1	68,632	34.9	13.5
02	71,135	-5.0	-22.1	50,595	-7.6	-26.3
03	82,575	9.1	16.1	58,978	11.9	16.6
04	77,909	9.0	-5.7	54,588	10.6	-7.4
05	87,492	13.7	12.3	63,137	18.3	15.7
06	77,414	7.8	-11.5	56,568	10.0	-10.4
07	83,908	9.5	8.4	64,356	11.5	13.8
08	82,884	7.8	-1.2	64,166	8.4	-0.3
09	85,896	5.1	3.6	61,296	3.5	-4.5
10	89,093	13.1	3.7	60,227	11.5	-1.7
11	87,789	3.9	-1.5	59,648	4.0	-1.0
12	96,501	12.2	9.9	67,417	11.5	13.0
2010 01	91,525	0.3	-5.2	65,691	-4.3	-2.6
02	95,815	34.7	4.7	72,815	43.9	10.8
03	88,807	7.5	-7.3	63,453	7.6	-12.9
04	82,498	5.9	-7.1	59,658	9.3	-6.0
05	92,366	5.6	12.1	67,764	7.3	13.6
06	83,516	7.9	-9.6	64,569	14.1	-4.7
07	92,599	10.4	10.9	73,183	13.7	13.3
08	87,203	5.2	-5.8	69,803	8.8	-4.6
09	99,150	15.4	13.7	76,911	25.5	10.2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7	105.1	2.4	106.3	3.1	105.5	3.8	105.1	2.4	104.6	2.4	105.3	2.5
2008	110.3	4.9	112.5	5.8	97.9	-7.2	110.4	5.0	109.8	5.0	110.2	4.7
2009	113.3	2.7	114.8	2.0	103.5	5.7	113.5	2.8	112.4	2.4	113.2	2.7
2009 3/4	114.0	2.0	115.6	0.9	102.4	4.6	114.2	2.0	112.9	1.5	113.8	1.7
4/4	114.0	2.5	115.6	2.7	99.1	4.5	114.3	2.7	113.3	2.5	113.8	2.5
2010 1/4	115.1	2.9	117.0	3.5	111.2	6.1	115.2	2.8	114.7	3.1	115.1	2.9
2/4	116.3	2.7	118.3	3.0	120.7	12.3	116.5	2.6	116.0	3.5	115.9	2.5
3/4	117.3	2.9	119.2	3.1	133.0	29.9	117.4	2.8	116.9	3.5	117.1	2.9
2008 10	111.5	5.1	113.6	5.5	94.9	-16.1	111.7	5.2	110.9	5.0	111.4	5.0
11	111.1	4.7	112.6	4.5	92.3	-11.0	111.2	4.8	110.5	4.3	111.0	4.6
12	110.9	4.0	111.7	3.1	97.1	-7.1	111.1	4.3	110.2	3.5	110.7	3.7
2009 01	111.0	3.5	111.8	2.6	102.6	0.5	111.2	3.6	110.3	3.1	111.0	3.7
02	111.9	4.0	112.8	3.2	104.5	0.7	112.0	4.0	111.3	3.7	112.0	4.3
03	112.9	3.9	114.3	3.2	107.3	8.1	113.2	4.1	112.0	3.0	112.7	4.0
04	113.2	3.5	114.9	2.9	111.5	11.5	113.4	3.6	112.3	3.0	113.2	3.8
05	113.2	2.6	114.8	1.5	109.5	10.9	113.5	2.7	112.0	1.9	113.1	2.6
06	113.3	1.9	114.8	0.4	101.5	9.5	113.6	2.0	111.9	1.1	113.1	1.8
07	113.8	1.5	115.4	0.2	102.2	5.7	114.1	1.7	112.6	1.1	113.6	1.2
08	114.0	2.0	115.7	1.0	103.2	4.3	114.2	2.1	113.0	1.7	113.9	1.8
09	114.1	2.2	115.8	1.6	101.9	3.8	114.3	2.2	113.1	1.9	114.0	2.2
10	113.8	2.1	115.4	1.6	100.4	5.8	114.1	2.1	112.9	1.8	113.6	2.0
11	114.0	2.6	115.4	2.5	95.8	3.8	114.2	2.7	113.3	2.5	113.8	2.5
12	114.3	3.1	115.9	3.8	101.0	4.0	114.6	3.2	113.6	3.1	114.0	3.0
2010 01	114.7	3.3	116.4	4.1	105.8	3.1	114.8	3.2	114.2	3.5	114.6	3.2
02	115.1	2.9	117.0	3.7	110.5	5.7	115.2	2.9	114.6	3.0	115.0	2.7
03	115.5	2.3	117.5	2.8	117.4	9.4	115.5	2.0	115.4	3.0	115.6	2.6
04	116.2	2.7	118.5	3.1	124.8	11.9	116.3	2.6	116.0	3.3	115.9	2.4
05	116.4	2.8	118.5	3.2	122.0	11.4	116.7	2.8	116.0	3.6	116.0	2.6
06	116.2	2.6	118.0	2.8	115.4	13.7	116.4	2.5	115.9	3.6	115.8	2.4
07	116.7	2.5	118.5	2.7	121.1	18.5	116.9	2.5	116.1	3.1	116.4	2.5
08	117.0	2.6	118.8	2.7	127.3	23.4	117.1	2.5	116.6	3.2	116.9	2.6
09	118.2	3.6	120.4	4.0	150.7	47.9	118.3	3.5	118.0	4.3	117.9	3.4
10	118.4	4.0	120.7	4.6	150.6	50.0	118.4	3.8	118.1	4.6	118.4	4.2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7	47,823	22.8	-	26,674	19.3	-	21,149
2008	42,936	-10.2	-	29,556	10.8	-	13,380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09 3/4	11,043	-11.4	18.9	5,033	-41.0	16.3	6,011
4/4	11,825	36.4	7.1	5,558	-5.4	10.4	6,267
2010 1/4	11,713	61.2	-0.9	5,756	36.8	3.6	5,957
2/4	13,433	44.6	14.7	6,202	43.4	7.7	7,229
3/4	14,651	32.7	9.1	6,360	26.4	2.5	8,291
2008 09	4,224	4.9	-2.3	2,756	41.8	5.6	1,468
10	3,863	-16.8	-8.5	2,148	-14.2	-22.1	1,715
11	2,718	-42.1	-29.6	1,991	-25.5	-7.3	727
12	2,089	-51.0	-23.1	1,736	-34.3	-12.8	353
2009 01	1,980	-44.5	-5.2	1,227	-46.9	-29.3	753
02	2,385	-32.0	20.5	1,506	-35.6	22.7	879
03	2,908	-22.0	21.9	1,471	-42.4	-2.3	1,437
04	3,014	-16.9	3.6	1,373	-48.9	-6.7	1,641
05	3,015	-18.0	0.0	1,291	-49.9	-6.0	1,724
06	3,258	-11.8	8.1	1,668	-37.9	29.2	1,590
07	3,473	-11.3	6.6	1,537	-51.4	-7.9	1,936
08	3,560	-17.7	2.5	1,653	-36.6	7.5	1,907
09	4,010	-5.1	12.6	1,843	-33.1	11.5	2,167
10	4,009	3.8	0.0	1,794	-16.5	-2.7	2,215
11	3,906	43.7	-2.6	1,774	-10.9	-1.1	2,132
12	3,910	87.2	0.1	1,990	14.6	12.2	1,920
2010 01	3,661	84.9	-6.4	1,814	47.8	-8.8	1,847
02	3,650	53.1	-0.3	1,901	26.3	4.8	1,749
03	4,402	51.4	20.6	2,041	38.7	7.4	2,361
04	4,358	44.6	-1.0	1,913	39.3	-6.3	2,445
05	4,483	48.7	2.9	1,928	49.3	0.8	2,555
06	4,592	40.9	2.4	2,363	41.7	22.6	2,229
07	4,898	41.0	6.7	2,064	34.3	-12.7	2,834
08	4,933	38.6	0.7	2,071	25.2	0.3	2,862
09	4,820	20.2	-2.3	2,225	20.7	7.4	2,595

고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2007	1,547	1,021	998	23	2.2	64.5
2008	1,564	996	973	24	2.4	62.2
2009	1,588	991	961	29	3.0	60.5
2009 3/4	1,592	1,020	991	28	2.8	62.3
4/4	1,598	992	965	27	2.8	60.4
2010 1/4	1,605	941	906	35	3.7	56.5
2/4	1,610	1,028	1,003	24	2.4	62.3
3/4	1,616	1036	1,006	29	2.8	62.3
2008 09	1,568	1,010	984	26	2.6	62.8
10	1,569	1,022	999	23	2.3	63.6
11	1,571	1,010	982	28	2.8	62.5
12	1,572	951	921	29	3.1	58.6
2009 01	1,575	906	880	26	2.8	55.9
02	1,577	923	895	27	3.0	56.8
03	1,580	959	926	33	3.5	58.6
04	1,582	1,008	978	29	2.9	61.8
05	1,585	1,020	986	34	3.3	62.2
06	1,588	1,037	1,001	36	3.5	63.1
07	1,590	1,012	980	32	3.2	61.6
08	1,592	1,016	989	26	2.6	62.1
09	1,594	1,032	1,005	27	2.6	63.1
10	1,596	1,040	1,012	28	2.7	63.4
11	1,598	999	972	27	2.7	60.8
12	1,600	939	912	27	2.9	57.0
2010 01	1,603	932	890	41	4.4	55.5
02	1,605	936	896	40	4.3	55.8
03	1,606	957	933	24	2.5	58.1
04	1,608	1,015	989	25	2.5	61.5
05	1,610	1,031	1,006	25	2.5	62.5
06	1,612	1,037	1,015	22	2.1	63.0
07	1,614	1,037	1,007	30	2.9	62.4
08	1,616	1,032	1,006	25	2.4	62.3
09	1,618	1,039	1,006	33	3.2	62.1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7	127,588	222,791	350,379	178,085	123,781	301,866
2008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07 09	127,030	194,769	321,799	171,290	118,470	289,760
10	126,709	195,285	321,994	173,230	120,038	293,268
11	126,084	196,175	322,259	178,875	121,188	300,063
12	127,588	222,791	350,379	178,085	123,781	301,866
2008 01	125,478	222,654	348,132	179,675	123,894	303,569
02	128,958	223,342	352,300	182,410	125,155	307,565
03	128,952	225,424	354,376	183,854	126,840	310,694
04	128,760	226,609	355,369	186,430	128,308	314,738
05	133,341	228,669	362,010	188,445	129,441	317,886
06	134,776	231,357	366,133	193,627	130,960	324,587
07	132,663	231,903	364,566	195,926	132,472	328,398
08	136,711	232,611	369,322	197,574	134,176	331,750
09	137,127	233,007	370,134	199,832	135,717	335,549
10	137,918	234,644	372,562	201,785	136,745	338,530
11	137,758	237,832	375,590	205,182	137,174	342,356
12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01	135,826	243,786	379,612	207,195	137,630	344,825
02	140,842	245,306	386,148	210,165	138,195	348,360
03	137,463	248,756	386,219	211,587	137,786	349,373
04	137,382	253,042	390,424	212,577	137,261	349,838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656	265,391	402,047	221,293	145,453	366,746
02	143,744	265,790	409,534	221,549	145,823	367,372
03	139,853	268,910	408,763	223,456	146,381	369,837
04	143,809	270,034	413,843	224,353	147,201	371,554
05	145,550	271,105	416,655	224,457	147,920	372,377
06	144,072	274,403	418,475	223,655	148,605	372,260
07	143,542	274,236	417,778	224,489	149,054	373,543
08	145,927	273,365	419,292	225,242	150,623	375,865
09	145,350	275,754	421,104	225,227	151,381	376,608

지역별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7	0.29	0.33	0.71	0.25	0.15	0.03
2008	0.64	0.70	0.89	0.19	1.55	0.23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09 3/4	0.28	0.48	0.03	0.17	0.29	0.01
4/4	0.35	0.48	0.72	0.06	0.02	0.02
2010 1/4	0.07	0.20	0.27	0.23	0.00	0.05
2/4	0.18	0.20	0.35	0.21	0.04	0.07
3/4	0.20	0.25	0.54	0.02	0.12	0.03
2008 09	1.10	1.44	1.61	0.24	0.88	0.28
10	1.10	0.99	2.14	0.15	3.74	0.40
11	1.40	2.03	1.22	0.44	2.24	0.10
12	1.17	1.28	1.55	0.28	4.00	0.11
2009 01	0.44	0.46	0.54	0.22	1.80	0.03
02	0.56	1.04	0.18	0.14	0.12	0.00
03	0.32	0.60	0.10	0.04	0.07	0.00
04	0.20	0.25	0.05	0.69	0.42	0.00
05	0.13	0.08	0.08	1.01	0.15	0.00
06	0.24	0.33	0.04	0.49	0.57	0.00
07	0.13	0.16	0.00	0.28	0.62	0.00
08	0.31	0.56	0.08	0.15	0.08	0.01
09	0.39	0.73	0.01	0.09	0.16	0.02
10	0.20	0.33	0.05	0.01	0.05	0.06
11	0.45	0.76	0.46	0.12	0.02	0.00
12	0.40	0.35	1.66	0.05	0.00	0.00
2010 01	0.09	0.12	0.09	0.05	0.00	0.04
02	0.29	0.49	0.11	0.55	0.00	0.00
03	0.10	0.02	0.61	0.06	0.00	0.08
04	0.11	0.04	0.40	0.17	0.01	0.10
05	0.19	0.25	0.26	0.25	0.10	0.05
06	0.24	0.30	0.38	0.20	0.00	0.05
07	0.30	0.39	0.71	0.00	0.36	0.01
08	0.22	0.25	0.65	0.00	0.00	0.05
09	0.09	0.10	0.27	0.07	0.00	0.02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토지거래(천㎡)		건축허가(㎡)		건축착공(㎡)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7	184,304	-21.0	9,944,363	15.0	6,884,740	13.7	119,150	43.6
2008	200,048	8.5	8,533,277	-14.2	5,302,243	-23.0	190,241	59.7
2009	270,249	35.1	7,203,977	-15.6	5,302,140	0.0	189,970	-0.1
2009 3/4	59,507	36.1	1,747,659	-10.3	1,171,624	-2.2	45,132	-7.7
4/4	57,245	32.1	2,051,642	-30.5	1,881,961	43.5	42,081	-10.2
2010 1/4	45,610	-40.1	1,399,393	-14.0	1,435,241	52.9	40,044	-22.3
2/4	49,753	-35.7	2,096,181	18.0	1,903,299	45.3	38,107	-25.6
3/4	41,451	-30.3	1,447,506	-17.2	1,287,048	9.9	34,666	-23.2
2008 09	10,952	10.4	569,516	30.7	308,400	-0.6	16,186	47.6
10	16,759	30.9	742,487	-38.0	742,463	34.2	15,662	38.2
11	12,398	-26.4	814,228	-60.5	312,457	-70.1	15,277	32.8
12	14,181	-19.7	1,394,576	81.3	256,170	-52.6	15,918	24.7
2009 01	13,008	-17.6	654,850	33.7	251,229	-59.8	16,349	16.2
02	29,816	100.5	391,595	-27.3	274,115	-12.3	16,926	13.7
03	33,316	32.6	580,477	-20.3	413,376	-20.6	18,251	16.7
04	28,297	50.2	390,564	-53.1	350,997	-42.4	17,939	10.6
05	23,397	19.2	487,434	6.0	522,731	48.5	17,229	1.9
06	25,663	36.9	899,756	53.8	436,107	16.6	16,063	-4.1
07	22,873	21.3	373,057	-48.4	331,433	-35.7	16,342	-1.8
08	18,848	35.4	845,405	29.2	459,092	22.8	14,595	-9.2
09	17,786	62.4	529,197	-7.1	381,099	23.6	14,195	-12.3
10	15,543	-7.3	400,493	-46.1	479,221	-35.5	13,656	-12.8
11	18,240	47.1	495,128	-39.2	927,808	196.9	14,148	-7.4
12	23,462	65.4	1,156,021	-17.1	474,932	85.4	14,277	-10.3
2010 01	14,782	13.6	399,707	-39.0	323,545	28.8	13,950	-2.3
02	16,923	-43.2	461,775	17.9	409,905	79.5	13,188	-5.5
03	13,905	-58.3	537,911	-7.3	701,791	69.8	12,906	-2.1
04	14,459	-48.9	637,912	63.3	542,246	54.5	12,973	0.5
05	16,252	-30.5	591,696	21.4	609,255	16.6	12,621	-2.7
06	19,042	-25.8	866,573	11.0	751,798	72.4	12,513	-0.9
07	16,773	-26.7	580,512	55.6	461,472	39.2	12,222	-2.3
08	14,787	-21.5	487,208	-42.4	432,427	-5.8	11,593	-5.1
09	9,891	-44.4	379,786	-28.2	393,149	3.2	10,851	-6.4

주택매매 및 전세매매지수

(2008.1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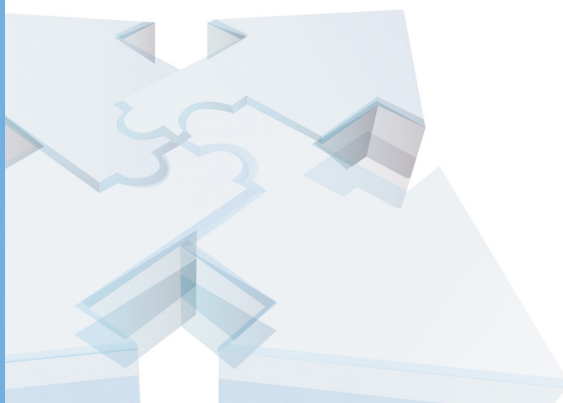
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7 10	99.1	1.1	0.0	98.1	101.5	96.1	96.7	2.4	0.4	96.8	97.0	97.5
11	98.9	0.9	-0.1	98.0	101.3	96.1	96.8	2.5	0.1	96.7	97.4	97.5
12	98.9	0.8	0.0	98.0	101.2	96.1	96.8	2.5	0.0	96.5	97.7	97.5
2008 01	98.7	0.6	-0.2	97.8	101.1	96.1	96.7	2.4	-0.1	96.2	97.8	97.5
02	98.6	0.2	-0.1	97.7	100.9	96.1	96.6	1.9	-0.1	96.0	97.9	97.1
03	98.5	0.2	-0.1	97.5	100.9	96.6	96.7	1.4	0.1	96.2	97.8	97.3
04	98.5	0.0	-0.1	97.4	100.9	96.6	97.0	1.6	0.3	96.4	98.3	97.3
05	98.5	0.0	0.0	97.5	100.9	96.6	97.1	1.7	0.2	96.7	98.3	97.3
06	98.8	0.3	0.3	98.0	100.6	97.5	97.7	2.4	0.6	97.1	99.1	97.4
07	99.1	0.6	0.3	98.5	100.5	97.9	98.0	2.4	0.3	97.3	99.4	98.0
08	99.3	0.7	0.2	98.8	100.3	99.3	98.6	2.8	0.6	97.8	100.0	99.5
09	100.1	1.1	0.8	100.0	100.5	99.7	99.5	3.4	0.9	99.3	100.0	100.0
10	100.3	1.2	0.2	100.2	100.5	99.7	100.0	3.4	0.5	100.0	100.0	100.0
11	100.2	1.3	0.0	100.2	100.3	99.7	100.2	3.5	0.2	100.3	100.0	100.0
12	100.0	1.1	-0.2	100.0	100.0	100.0	100.0	3.3	-0.2	100.0	100.0	100.0
2009 01	99.7	0.9	-0.3	99.6	99.7	100.2	99.6	3.0	-0.4	99.3	100.0	100.2
02	99.5	0.9	-0.2	99.2	99.7	100.2	99.2	2.8	-0.4	98.9	99.7	100.2
03	99.3	0.7	-0.2	99.0	99.5	100.2	99.1	2.5	-0.1	98.5	100.0	100.2
04	99.2	0.8	0.0	98.9	99.6	100.5	98.9	2.0	-0.2	98.6	99.3	100.2
05	99.1	0.6	-0.1	98.8	99.2	100.5	98.9	1.8	0.0	98.6	99.3	100.2
06	99.1	0.2	0.0	98.7	99.3	100.5	98.8	1.1	-0.1	98.5	99.1	100.2
07	99.0	-0.1	0.0	98.6	99.3	100.5	99.0	1.0	0.2	98.6	99.5	100.3
08	99.0	-0.3	0.0	98.8	98.9	100.5	99.1	0.5	0.1	98.7	99.5	100.3
09	99.3	-0.8	0.3	99.1	99.1	101.3	99.7	0.1	0.6	99.0	100.2	100.9
10	99.8	-0.5	0.5	99.4	99.8	101.5	100.0	0.0	0.3	99.4	100.0	103.5
11	99.9	-0.3	0.1	99.7	99.8	101.5	100.2	0.0	0.3	99.7	100.3	103.5
12	100.0	0.0	0.0	99.8	99.8	101.5	100.3	0.3	0.1	99.9	100.3	103.4
2010 01	100.0	0.3	0.0	99.8	99.8	101.5	100.4	0.8	0.1	100.0	100.5	103.4
02	100.1	0.6	0.1	100.0	99.8	101.5	100.6	1.4	0.2	100.4	100.5	103.4
03	100.2	0.9	0.1	100.2	99.8	101.5	101.1	2.0	0.5	100.9	101.0	103.5
04	100.1	0.8	-0.1	100.3	99.2	101.9	101.6	2.8	0.5	101.2	101.9	103.7
05	100.1	1.0	0.0	100.4	99.2	102.2	102.5	3.6	0.9	101.7	103.4	104.4
06	100.1	1.1	0.0	100.4	99.2	102.4	102.5	3.7	0.0	102.2	102.9	104.1
07	100.1	1.1	0.0	100.5	99.2	102.4	102.6	3.6	0.1	102.7	102.9	104.1
08	100.0	1.0	-0.2	100.6	98.7	102.4	102.8	3.7	0.2	103.3	102.9	104.2
09	100.0	0.7	0.0	100.7	98.7	102.6	103.7	4.1	0.9	103.8	104.6	104.9
10	100.0	0.3	0.0	100.8	98.7	102.6	104.6	4.6	0.8	104.4	105.8	105.9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남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및 해설



이용자를 위하여

1.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시계열자료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환산(실질화),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의 조정 등으로 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의 최근 2~3개월 수치는 각각 잠정치입니다.
4. 본 책자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정점 (Peak)
 - T : 저점 (Trough)
 - - : 해당사항 없음 (Not Available)
5. 현재 충남지역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종합지수만 작성되고 있으며,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는 향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6.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나 경기종합지수에 관한 제안 또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박 용 진	042-220-2667
충남발전연구원	백 운 성	041-840-1168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

구 분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2005=100)		대형소매점판매지수(2005=100)	
	천명	전월비(%)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07 09	738.9	0.3	140.3	1.1	109.9	4.8
10	740.2	0.2	142.5	1.6	114.3	4.0
11	739.4	-0.1	144.5	1.4	115.0	0.6
12	742.6	0.4	146.7	1.5	112.6	-2.1
2008 01	748.6	0.8	148.4	1.2	113.8	1.1
02	754.7	0.8	150.7	1.5	116.5	2.3
03	757.7	0.4	152.5	1.2	120.4	3.4
04	758.2	0.1	153.1	0.4	121.4	0.9
05	757.3	-0.1	154.9	1.2	121.6	0.2
06	761.0	0.5	157.0	1.3	122.3	0.6
07	763.2	0.3	157.3	0.2	123.0	0.6
08	767.6	0.6	158.3	0.7	124.2	0.9
09	765.0	-0.3	159.3	0.6	122.8	-1.1
10	767.5	0.3	160.6	0.8	124.2	1.1
11	767.0	-0.1	158.1	-1.6	126.9	2.2
12	767.4	0.0	150.9	-4.5	127.5	0.4
2009 01	758.5	-1.2	146.5	-2.9	126.7	-0.6
02	752.0	-0.9	144.0	-1.7	122.7	-3.2
03	740.6	-1.5	143.7	-0.2	123.7	0.8
04	741.1	0.1	144.8	0.7	122.9	-0.6
05	742.1	0.1	149.8	3.5	125.5	2.1
06	747.0	0.7	160.5	7.1	126.6	0.9
07	744.4	-0.3	171.5	6.8	128.3	1.4
08	745.1	0.1	180.7	5.4	128.4	0.1
09	749.6	0.6	188.9	4.5	129.4	0.8
10	752.1	0.3	194.9	3.1	129.1	-0.2
11	751.6	-0.1	198.8	2.0	130.9	1.4
12	746.7	-0.6	202.2	1.7	131.8	0.6
2010 01	747.0	0.0	204.9	1.3	134.9	2.3
02	749.7	0.4	206.2	0.6	137.9	2.3
03	754.5	0.6	207.5	0.7	137.4	-0.4
04	759.9	0.7	208.6	0.5	134.5	-2.1
05	762.2	0.3	211.1	1.2	131.1	-2.5
06	764.2	0.3	214.0	1.3	132.3	0.9
07	765.8	0.2	215.6	0.8	135.6	2.5
08	765.9	0.0	219.3	1.7	135.5	-0.1
09	761.2	-0.6	221.6	1.0	133.3	-1.6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구 분	전력소비량		수출액(실질)		수입액	
	Mkw	전월비(%)	천불	전월비(%)	천불	전월비(%)
2007 09	2,352,705.8	1.1	4,268,198.7	1.0	2,024,161.1	-2.1
10	2,376,576.3	1.0	4,330,716.6	1.5	2,029,233.9	0.3
11	2,404,047.0	1.2	4,449,412.8	2.7	2,021,654.0	-0.4
12	2,428,814.9	1.0	4,567,917.1	2.7	2,041,530.9	1.0
2008 01	2,452,476.0	1.0	4,471,625.0	-2.1	2,028,178.1	-0.7
02	2,476,855.0	1.0	4,416,259.7	-1.2	2,087,104.6	2.9
03	2,504,555.6	1.1	4,299,592.1	-2.6	2,128,318.6	2.0
04	2,513,877.6	0.4	4,164,586.0	-3.1	2,104,634.9	-1.1
05	2,531,722.8	0.7	3,989,557.6	-4.2	2,073,893.9	-1.5
06	2,544,882.6	0.5	3,766,086.4	-5.6	2,018,745.6	-2.7
07	2,564,587.0	0.8	3,708,525.5	-1.5	2,036,918.4	0.9
08	2,575,843.9	0.4	3,735,533.0	0.7	2,009,331.4	-1.4
09	2,581,603.7	0.2	3,793,343.2	1.5	1,995,849.9	-0.7
10	2,608,532.9	1.0	3,831,980.9	1.0	1,964,274.6	-1.6
11	2,599,474.0	-0.3	3,769,763.4	-1.6	1,956,496.6	-0.4
12	2,566,560.9	-1.3	3,625,334.0	-3.8	1,912,614.7	-2.2
2009 01	2,549,114.3	-0.7	3,502,779.5	-3.4	1,787,426.7	-6.5
02	2,533,706.6	-0.6	3,332,121.4	-4.9	1,740,353.6	-2.6
03	2,520,529.7	-0.5	3,255,402.3	-2.3	1,673,065.5	-3.9
04	2,516,291.3	-0.2	3,241,820.4	-0.4	1,608,383.9	-3.9
05	2,526,444.1	0.4	3,323,441.7	2.5	1,520,292.1	-5.5
06	2,573,990.6	1.9	3,512,169.1	5.7	1,508,080.4	-0.8
07	2,606,810.1	1.3	3,708,731.2	5.6	1,525,055.8	1.1
08	2,638,797.5	1.2	3,856,513.3	4.0	1,503,245.8	-1.4
09	2,676,825.7	1.4	3,957,885.4	2.6	1,520,592.9	1.2
10	2,713,673.6	1.4	4,079,897.9	3.1	1,534,191.4	0.9
11	2,762,826.2	1.8	4,204,613.9	3.1	1,551,117.5	1.1
12	2,814,552.7	1.9	4,360,568.8	3.7	1,559,523.0	0.5
2010 01	2,889,553.1	2.7	4,462,572.1	2.3	1,604,745.0	2.9
02	2,959,247.6	2.4	4,539,520.5	1.7	1,641,840.8	2.3
03	3,024,533.4	2.2	4,642,103.9	2.3	1,657,691.7	1.0
04	3,079,805.6	1.8	4,698,918.2	1.2	1,670,814.8	0.8
05	3,135,017.1	1.8	4,806,128.2	2.3	1,713,730.3	2.6
06	3,175,755.0	1.3	4,865,529.1	1.2	1,773,916.4	3.5
07	3,195,996.3	0.6	5,004,592.8	2.9	1,780,455.5	0.4
08	3,225,543.1	0.9	5,144,988.2	2.8	1,770,286.9	-0.6
09	3,253,605.0	0.9	5,232,883.2	1.7	1,773,719.6	0.2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개요

1)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 가공통계
- 승인번호 : 제 21308 호

2) 작성연혁

- 2000. 7. : 통계작성 승인
- 2009. 4. : 통계작성 수정승인

3) 작성목적

-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무역 등 경제 각 부분의 지표 중에 경기를 잘 반영하는 주요지표를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경기종합지수에 의하여 전체 경기의 변화방향, 국면, 전환점을 판단,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
- 지역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평가 등의 기초자료 제공

4) 구성지표(6개)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5) 작성부문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율, 순환변동치

6) 작성주기 및 결과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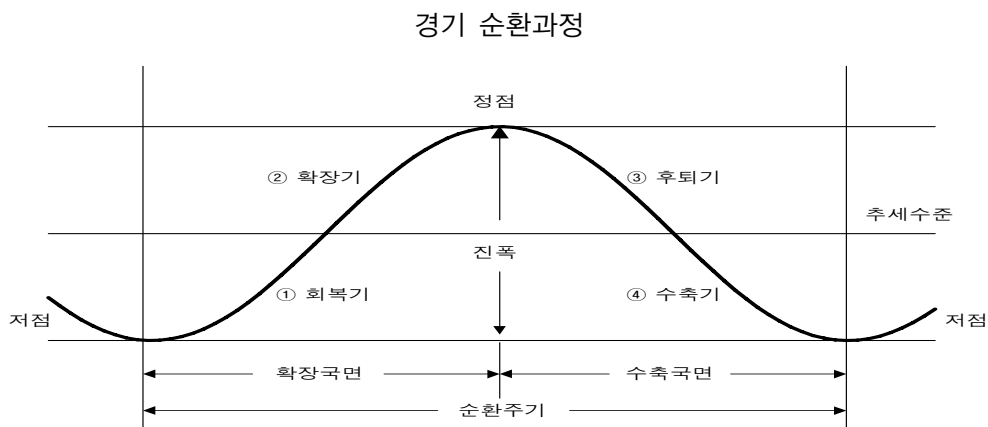
- 주 기 : 매월
- 공표방법 및 시기 : 보도자료·인터넷 게재 : 작성대상월 익익월 15일경
- 공표범위
 - 지역 : 충청남도
 - 내용 : 동행종합지수 및 구성지표

7) 기타 이용상의 유의점·제약요인

- 경기변동은 선행·동행·후행지수를 동시에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동행지수만 작성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
- 계절변동요인,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및 순환변동치 산출 등의 방법이 상이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기순환 국면

- 경기순환이란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
- 경기순환의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를 경제활동이 위축된 수축국면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주로 이용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하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간의 차이를 순환진폭이라 함



기준순환일

- 기준순환일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변동에서 국면전환이 발생하는 경기전환점을 의미
-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과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이 있고, 개별 경기지표에서의 전환점은 특수순환일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추세성장률을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에서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후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적으로 발표
- 충청남도는 지역단위로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한 이후인 1990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경기지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을 설정

충청남도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구 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90.1	92.1	93.1	24	12	36
제2순환기	93.1	96.7	98.9	42	24	66
제3순환기	98.9	00.10 ¹⁾		26		

주) 1)은 잠정치임

경기순환과 경기지표의 변동요인

- 일반적인 경기지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계절요인 : 일년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 불규칙요인 : 천재지변, 파업 등에 따른 단기적·우발적 변동
 - 추세요인 :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에 의한 장기적 변동
 - 순환요인 :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변동하는 요인
- 경기분석에는 이들 요인 중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고 추세·순환치 또는 순환변동치가 이용됨

순환변동치와 증감율

- 경기지표는 계절조정계열(추세·순환치)의 전월(기)비와 순환변동치, 원계열의 전년동월(기)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경기 국면과 전환점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며,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함
- 전월(기)비가 추세치 전월비를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 통과할 때가 경기전환점이 됨. 전월비가 가장 큰 시점과 가장 작은 시점은 추세·순환변동치의 변곡점일뿐 경기전환점과는 무관
- 전년동월(기)비도 전월비처럼 추세치 전년동월(기)비와의 관계에 의하여 국면 및 전환점을 판정하며, 전년동월(기)비의 정·저점은 경기전환점과는 무관하며, 변곡점의 위치, 국면지속기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짐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전환점과 속도·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 지역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
- 충청남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동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할 계획으로 있음
 - **동행종합지수** : 공급측면의 생산지수, 노동투입량(비농가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수출액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선행종합지수** : 투자관련 허가·수주지표나 재고율, 통화량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에측에 이용
 - **후행종합지수** : 재고, 금리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

충남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량기법

- 지역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계량기법은 통계청의 작성방법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

1) 개별 구성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 경기종합지수의 작성에는 경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지표를 선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개별 시계열자료의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요인은 X-12-ARIMA방법으로, 불규칙요인은 불규칙정도에 따라 3 또는 6개월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

- ① 개별 구성 지표들의 비경기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조정(X-12-ARIMA) 및 불규칙조정(3또는6개월말항 이동평균)을 하여 추세순환계열($X_{i,t} = T_{i,t} \times C_{i,t}$)을 산출
- ② 구성 지표별로 전월대비 증감율(대칭변화율($Y_{i,t}$): symmetric percent changes)을 산출

㉠ 수준지표(level indicators)인 경우

$$Y_{i,t} = \frac{X_{i,t} - X_{i,t-1}}{X_{i,t} + X_{i,t-1}} \times 200$$

㉡ 비율지표(ratio indicators)와 영(0) 또는 음수가 포함된 경우

$$Y_{i,t} = X_{i,t} - X_{i,t-1}$$

여기서, $i = 1, 2, \dots, N(\text{구성지표}), \quad t = 2, 3, \dots, T(\text{시점})$

2) 구성지표의 표준화

- 구성지표의 표준화란 구성지표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순환진폭(cyclical amplitude)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구성지표의 순환진폭이 평균적으로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것
- ③ 진폭(변동폭)이 큰 하나의 구성 지표에 의해 종합지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각 구성 지표의 대칭변화율($Y_{i,t}$)을 절대치평균인 표준화인자(S_i)로 나누어 표준화증감율($Z_{i,t}$)을 산출

$$Z_{i,t} = \frac{Y_{i,t}}{S_i} \quad \text{단, } S_i = \frac{\sum_{t=2}^T |Y_{i,t}|}{T-1} \quad (\text{표준화인자})$$

- ④ 표준화증감율($Z_{i,t}$)의 합을 구성지표수로 나누어 평균증감율(AC_t)을 산출

$$AC_t = \frac{\sum_{i=1}^N Z_{i,t}}{N}$$

3) 지수화

- 동행종합지수는 매월의 평균증감율을 누적하여 원지수를 계산한 뒤, 기준년도(2005년)로 조정하여 산출

- ⑤ 매월의 평균증감율(AC_t)을 누적하여 지역별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산출(시작년월=100)

$$RCI_t = RCI_{t-1} \times \frac{200 + AC_t}{200 - AC_t} \quad \text{단, } RCI_1 = 100$$

- ⑥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기준년도(2005년)로 조정한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를 산출(기준년도=100)

$$CI_t = \frac{RCI_t}{BASE} \times 100 \quad \text{단, } BASE \text{는 기준년도의 } RCI_t \text{의 평균}$$

4) 경기순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

- 동행종합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와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증가추세를 제거하고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만을 추출하여 순환변동치를 산출
-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 동행종합지수의 보조지표로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산출하여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⑦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는 상승추세가 너무 강하여 지수 상에서 경기속도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면 및 전환점 등 경기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순환변동치를 산출

$$C_t = \frac{CI_t}{T_t} \times 100$$

여기서, T_t 는 H-P 필터 방법으로 산출



고객사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광물 소재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페인트 분체도료 코팅제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플라스틱 제품 유리제품 인조대리석 전자재료

Crystal Silica
Fused Silica
Spherical Silica
Barium Sulfate
Spherical Alumina
Feldspar

각상 실리카
용융 실리카
구상 실리카
바라이트
구상 알루미나
장석



(주)한국반도체소재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853-2
TEL 041-734-9800 FAX 041-734-9833
www.sibelcoasia.com



위 기업은 2004년 충청남도가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지원합니다.